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靜軒瀛海處坎錄』에 나타난
趙貞喆의 意識研究

濟州大學校 大學院

國語國文學科

宋 仁 榮

2016年 8月

『靜軒瀛海處坎錄』에 나타난 趙貞喆의
意識研究

指導教授 金 相 助

宋 仁 榮

이 論文을 文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6年 6月

宋仁榮의 文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印)

委 員 _____ (印)

委 員 _____ (印)

濟州大學校 大學院

2016年 6月

A Study on Jo Jeong-cheol's Viewpoint
-Based on "Jeongheonyeonghaecheogamrok"-

Song In-yeong

(Supervised by professor Sang-Jo Kim)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Jun, 2016.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
Thesis director, Sang-Jo Kim, Prof. of Korean Literature
.....
.....
.....

(Name and signature)

.....

Dat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目 次

| | |
|---------------------------|----|
| I. 序論 | 1 |
| II. 『靜軒瀛海處坎錄』의 시 세계 | 14 |
| 1. 제주목 유배기 | 15 |
| 1)제주의 자연환경과 풍속 | 15 |
| 2)제주에서 만난 사람들 | 19 |
| 2. 정의현 유배기 | 36 |
| 1)제주에 관한 시각의 변화 | 37 |
| 2)「耽羅雜詠」의 시각 | 40 |
| III. 結論 | 60 |
| ※參考論著 | 65 |
| ※ABSTRACT | 69 |

I. 序論

‘사람의 生死禍福은 하늘이 주관한다.’¹⁾ 이 말은 靜軒 趙貞喆의 삶을 두고 한 말이나 다름없다. 조정철은 자가 成卿, 호는 靜軒 또는 大陵이다. 本貫은 楊州이고 참관을 지낸 趙榮順의 아들로 경기도 장단에서 英祖 27년(1751)에 태어났다. 肅宗때 노론과 四大臣의 한사람으로 右議政을 지낸 趙泰采가 그의 증조가 되며 英祖때 관서와 弘文館提學 등을 지낸 晦軒 趙觀彬은 그의 종조부가 된다.

먼저 그의 이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英祖 51年(1775) 8월 16일 그는 스물다섯 살에 과거(庭試文科)에 급제하게 된다. 그러나 반대파인 洪國榮의 책동으로 쉽게 벼슬에 나갈 수가 없었다. 게다가 그 이듬해 3월 英祖가 죽고 正祖가 즉위하게 되자 世孫(正祖)의 즉위를 반대했던 老論僻派는 모조리 환란을 당할까 염려하게 되었다. 그런 와중에 正祖 1년(1777) 6월 洪麟漢, 洪趾海, 尹養老 등이 중심이 된 逆謀事件이 터졌다.²⁾ 이 사건은 洪相範이 주동이 되어 정조의 즉위를 거부하고 사도세자의 서자 중 한 사람인 은전군 李攢을 왕으로 추대하려 한 역모 사건이다. 사건 전말을 추국하는 과정에 洪相吉의 공초에서 그의 형 洪상범의 종인 甘丁이 조정철의 집에 드나들었다고 하는 진술이 나왔다.³⁾ 더욱이 당시 僻派의 거장이었던 左議政 洪麟漢이 과거 罪人으로 몰렸던 그의 아버지 趙榮順을 구제하려다 파직된 일도 있는 등 그 쪽으로 가까웠던 탓에⁴⁾ 조정철은 역모라는 엄청난 죄목으로 8월 11일 제주도에 유배를 가게 되었다.

이 사건에 관련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면치 못하였으나 정헌은 正祖의 배려로 극형을 면한 대신 제주도 유배로 그쳤다. 이는 그의 증조부 노론 사대신 중의 한 사람인 趙泰采 덕분이었다. 조태채는 일찍이 영조를 왕위에 올립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다가 진도에 유배되어 사약을 받았는데, 그런 증조부의 공로를 참작하여 특별히 은전을 베풀었던 것이다. 정헌이 제주도로 유배되었을 때 그는

1) 俞漢雋, 『靜軒瀛海處坎錄序』 『靜軒瀛海處坎錄』 (이하 『처감록』으로 줄임 - 제주문화원, 2006) 5원문 7~8면, 번역본 54쪽.

2) 『정조실록』에 따르면 『조선왕조실록』에 7월 3일에는 반역의 전말을 밝히는 윤음을 내리고 (같은 책 권44, 597면), 8월24일에는 討逆 敎文을 발표하였다. (같은 책 695면)

3) 『실록』 44, 685쪽.

4) 趙源煥 編著, 『楊洲趙氏史料選集』, 保景文化史, 1994, 889쪽.

부친상의 탈복도 하기 전이었으므로 상복을 입고 유배길에 올랐다. 정헌은 1777년 9월 11일에서 1782년 2월까지의 제주도 제주목에서, 그리고 1782년 1790년 9월까지의 정의현에서 유배생활을 하였다, 이후 다시 1790년부터 1803년 2월까지 추자도에서, 1803년부터 1805년 3월까지의 전라도 나주목 광양에서, 그리고 다시 1805년에서 1807년 5월까지 전라도 구례에서, 이후 1807년에서 1807년 7월까지 황해도 토산현, 경기도 장단현으로 이배되기까지 무려 29년을 유배인의 신분으로 살게 된다. 그러나 이것으로 정헌의 생이 끝난 것이 아니었다.

正祖가 在位해 있는 동안 풀려날 길이 없었던 정헌은 純祖가 즉위하면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직접 석방의 길을 터 준 것은 당시 領事로 있던 徐龍輔였다. 그는 그 무렵 섭정을 맡고 있던 대왕대비 貞純王后에게 공신(相臣趙泰采)의 후손임을 들어 조정철의 석방을 간곡히 조언해 주었던 것이다.⁵⁾ 죄가 풀린 후 정헌은 1803년 정헌은 해배 후 통훈대부 홍문관 교리에 임명되었고 1811년 통훈대부 제주목사 겸 전라도방어사가 되어 자신의 유배지였던 제주로 다시 오게 되는 유배역사 상 전무후무한 새로운 역사를 쓰기에 이른다. 그 후 1812년 통훈대부 동래부사, 1813년 통정대부 충청도 관찰사로, 1816년 통정대부 이조참의, 1822년 가선대부 이조참판, 성균관대사성으로 임명되고, 1824년 자헌대부 형조판서와 예조판서로 임명된다. 1826년 자헌대부 의정부 좌참찬에, 그리고 1827년 자헌대부 사헌부 대사헌에, 1828년 자헌대부 형조판서에, 1830년에 자헌대부 사헌부 대사헌과 지충부사에 임명되고 1831년에 81세의 나이에 숨을 거두게 된다.⁶⁾

정헌이 제주로 유배될 당시의 조선시대 유배지 선정에 대한 기준을 살펴보면 대략적으로 遠流와 島流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여기에서 ‘島流’라고 해서 어떤 기준을 책정하여 배소를 결정한 것 같지는 않다. 그 때 그 때의 정치정세나 죄인의 신분 차이와 죄상의 경중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推察되지만 자세한 사정은 뚜렷치 못하다. 당시 유인들을 처리했던 실례를 자세히 검토해보면 僻遠地로 流配 당한 자 보다는 섬으로 流配된 쪽이 훨씬 중죄인으로 여겨지기 일쑤였다. 그렇기 때문에 섬에 유배된 자가 감면되어 본토로 移配된 예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육지에 정배됐던 자가 배소를 떠났다는 이유로 杖에 처해진 뒤에 또 다른 섬

5) 趙源煥 編著, 『楊洲趙氏史料選集』, 保景文化史, 1994, 890쪽.

6) 위의 책, 908~909쪽.

으로 轉配된 예도 적지 않았다. 이것은 조선의 형벌 제도 자체의 특성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朋黨政治에 이용된 쪽이 훨씬 컸던 데에서 기인하는 것이라 하겠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유형 가운데 最極刑이라고 일컬어지는 절도안치라고 하는 형벌은 봉건국가의 권력 구조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던 것이다. 조선봉건왕국이 遠配 보다도 島配를 중시한 것도 거기에 이유가 있는 것이다.⁷⁾

제주도가 유배지로 본격적으로 인식되고 유배가 이루어진 것은 조선시대이지만 실제 제주 유배가 나타난 것은 고려시대부터였다. 원나라는 충렬왕 원년(1275)에 탐라총관부를 설치하고 직접 제주도를 관리하였는데 이는 제주도가 갖는 전략적 중요성에 주목한 것이었다. 즉 경제적으로는 우마를 양육하면서 일본을 공격하는 기지로 삼았으며, 정치적으로는 원나라의 죄수들을 제주도로 유배시킨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제주도는 이민족의 유형지로 처음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제주는 고려의 유배지로 정착되기 시작하였고 조선 개국 후 본격적으로 제주 유배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순종 2년(1909) 일본에 의해 사법권이 이양될 때까지 261명이라는 많은 인물들이 유배되는 유배지가 되었다.⁸⁾

제주는 조정철 一家와는 기구한 사연을 지닌 땅이었다. 정헌이 到配되기 50여 년 전인 辛壬士禍 때 노론사대신의 한 사람이었던 그의 증조 趙泰采는 종중조 趙泰耆가 領導하는 소론파의 모함에 걸려 사사되고 그 후 자녀 4남매가 모두 유배형을 당한 일이 있었다. 그 때 큰 아들 鼎彬은 제주 정의현에 둘째 아들 觀彬은 전라도 영흥군 羅老島에 셋째 아들 謙彬은 경상도 거제도에 그리고 딸은 羅州牧 黑山道에 각각 유배되었다. 이때가 景宗 3년(1723) 1월이었다. 이들은 다음해 8월에 景宗이 죽고 英祖가 즉위하면서 적거 2년 만에 모두 풀려났다. 그 후 趙觀彬이 다시 4大臣 사건을 들어 上訴하다가 임금의 뜻을 거슬러 英祖 7년(1731)에 대정현으로 유배되었고, 英祖 30년(1754)에는 그의 부친 趙榮順이 副修撰으로서 충간하다가 역시 대정현에 안치되었다. 50년 동안에 시일을 달리하여 祖子孫 3대에 걸쳐 네 사람이 귀양살이를 하게 된 것이다.⁹⁾ 이렇게 제주와 특별한 인연이 있어서인지 제주는 정헌에게 유배지긴 하나 낯설지만은 않은 땅으

7) 金泰鉉 著, 洪性穆 譯, 『濟州道流人傳』, (濟州道愚堂圖書館, 2005, 35~36쪽.

8) 김재형, 「조선시대 제주유배인 실태분석과 특징」, 제주대학교, 석사논문, 2011, 5~6쪽.

9) 趙源煥, 앞의 책, 890쪽.

로 받아들여졌다. 그는 어려서부터 제주에 대한 꿈을 자주 꾸었으며 제주에 도착하여 본 풍경도 낯설지 않았다고 고백하기도 했다.¹⁰⁾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의 유배 생활은 결코 만만하지가 않았다. 조선시대 유배형은 유배인의 신분과 관직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관할 관청이 다르고, 압송관이 차등 있게 배정되었으며, 지방의 접대와 처우 등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유배 길목에 있는 지역의 수령들은 유배인에게 말과 음식을 제공하도록 허용되었기도 하고 유배인에 따라서는 후한 대접을 받기도 하였다. 또한 말과 음식 외에 여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과 금전을 제공하기도 했다.¹¹⁾ 그와 반대로 유배인에 따라서는 혹독한 고초를 겪는 일도 있었다. 정헌은 아마도 그 대표적인 인물 중의 하나라고 할 것이다.

이렇듯 정헌 조정철의 유배 기록인 『정헌영해처감록』은 1777년 정헌이 제주에 유배된 긴 유배생활 중 제주목에서 5년, 정의현에서 8년, 총 13년 동안의 제주유배생활을 기록한 시문집이다. 이 시문집은 유배인의 슬픔과 억울함, 그리고 한을 읊은 글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橘柚品題」와 「耽羅雜詠」을 비롯한 많은 시들은 제주의 자연과 풍속, 인심, 정치상황과 당시 제주의 산업, 즉 사냥, 말 사육, 농사짓기, 재배되는 귤의 종류 등을 알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제주에서 성읍으로 가는 길, 소위 제주 3로(三路) 중 2로에 해당하는 노정¹²⁾도 자세히 소개되고 있다. 특히 이 시문집에는 18세기 당시의 중앙정치 상황과 연계한 제주의 정치상황, 관리들의 폭정, 이에 따른 제주민들의 피폐한 삶이 잘 드러나 있다. 따라서 유배인의 입장에서 막연히 바라보던 제주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정헌의 의식의 흐름에 전환을 가져오게 했는지가 이 시문집의 지니는 가장 큰 의미라 하겠다. 이러한 의식의 전환은 오랜 기간 제주에 머물며 이곳의 실상들을 속속들이 들여다 볼 수 있었던 이유도 있었겠지만 더러는 그에게 아낌없이 온정을 베푸는 일부 제주민들의 사랑이 그로 하여금 제주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10) 『處坎錄』, 원문 45면, 번역본 107쪽. (이 책은 앞에 번역, 뒤에 원문을 실어 놓고, 면수를 원문과 번역본을 따로 붙여 놓았는데 본고에서는 원문은 면수로 표시하고 번역본은 쪽수로 표시한다. 그것은 번역본의 번역을 참고하기는 하였지만 필자가 손질하지 않은 시들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11) 김경숙, 『역사비평 통권 67호-「조선시대 유배길」』, 역사와 비평사, 2014, 269쪽.

12) 『정헌영해처감록』, 김익수 역, 제주문화원, 2006, 13쪽.

『정헌영해처감록』의 구성을 살펴보면 『처감록』은 총 4권 421수로 이루어져 있다. 이를 더 세밀하게 분류해 보면 제1권에 106수, 제2권에 124수, 제3권에 88수, 제4권에 103수이며 이 중 24수는 연작시다. 연작시는 2수부터 33수까지 다양한 분포를 이루고 있다. 시문집의 내용을 목차별로 자세히 나누어 살펴보면 1수부터 253번째 수까지는 정헌이 제주에 유배를 오고 난 후 그 비통함과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들이 다수였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시의 많은 부분이 그의 종조부인 회헌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회헌의 글에서 차운하여 쓴 것들이 많다. 254번째 수에서 289번째 수까지는 1781년 정조 5년, 辛丑年에 일어난 金薈耄 일당의 모함으로 인해 일어난 옥사사건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고, 290번째 수에서 335번째 수까지는 옥에서 풀려나 정의현으로 이배되기 전까지의 이야기들, 그리고 336번째 수에서 420번째 수까지는 정의현에서의 유배생활을 그려내고 있으며 그리고 마지막 421번째 수에는 정헌이 해배되어 전라도 방어사 겸 제주목사가 되어 제주로 돌아온 1811년에 지어진 시로 이루어져 있다.

조정철에 대한 최초의 연구는 양순필 교수의 논문에서 시작된다.¹³⁾ 그의 논문은 제주도를 중심으로 조선조 유배문학을 연구한 논문이다. 그는 이 논문에서 유배문학의 배경과 개관을 이야기하고 난 후 제주유배문학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중 제 3장 제 2절 詩歌 부문 漢詩 편에 조정철의 詩 몇 편을 소개하였다.¹⁴⁾ 이후, 양순필 교수는 이 논문을 바탕으로 쓴 그의 책에서¹⁵⁾ 논문에 수록된 한시 중 조정철의 작품인 「北水閣」, 「自歎」, 「自悼書 其二, 其八」, 「枕上」, 「客恨」, 「賦一絶」을 소개하고 있다. 양순필 교수는 ‘이 중 5언시 「自悼書」에 나타난 ‘凶賊’이란 시어의 사용은 절박한 심정을 직설적으로 표현했을 것으로 보이나 시는 감정의 표현인 동시에 감정의 순화에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은 너무 생경하게 느껴진다’고 말하고 있다.¹⁶⁾

이후 정헌 조정철은 다시 홍순만선생에 의해 조명을 받게 된다. 홍순만선생은 그의 책¹⁷⁾에서 ‘烈女, 홍윤애 傳’이라는 제목으로 조정철과 홍윤애와의 이야기

13) 양순필, 「조선조 유배문학 연구-濟州道를 중심으로」, 건국대 박사학위 논문, 1982.

14) 위의 논문, 69~71쪽.

15) 양순필, 『제주유배문학연구』, 제주문화, 1992, 149~152쪽.

16) 위의 책, 152쪽.

17) 홍순만, 『제주여인상-烈女 홍윤애 傳』, 제주문화원, 1998.

를 소상히 다루고 있다. “조선시대 오백 년 동안 제주에서는 수많은 선비들이 귀양살이를 했고 그에 얽힌 이야기는 너무나 많다. 그 가운데는 제주 여인과 유배인 사이에 얽힌 사랑의 이야기가 적지 않다”로 시작된 이 글은 조정철이라는 유배인과 홍윤애라는 여인과의 기구한 사랑에 대해 담담히 기술하고 있다. 홍윤애의 가문을 살펴보면 아버지는 향리를 지낸 洪處勳으로 태사공 洪殷悅의 27세손이며 제주입도 시조 洪允康의 13세손이었으며 어머니는 전주 이씨로 알려졌다. 이후 이 책에서는 조정철이 제주에 유배된 배경과 제주도와 조씨 일가와와의 묘한 인연, 그리고 조정철의 고독한 유배생활에 대해 다루고 있다. 그러던 중 홍랑이 조정철의 적소를 드나들기 시작한 것은 1779년(정조 3)이 저물어갈 무렵이었으며 처음에는 동정으로 시작된 두 사람의 만남이 결국 사랑으로 변하여 둘 사이에 딸 하나를 낳게 되기에 이른다.(1781, 정조5)

그러나 이러한 행복도 잠시, 金耆耆가 제주목사로 부임하면서 두 사람은 생과 사의 갈림길에 놓이게 되었다. 목사 김시구는 노론 사대신을 죽음에 이르게 한 신임사화를 일으켰던 金一鏡 쪽, 즉 소론파에 속한 사람으로서 조정철의 집안과는 전부터 원수의 집안이었던 것이다. 하여 김시구 목사는 제주에 부임하자마자 호시탐탐 조정철을 죽이려고 기회를 엿보던 중 결국 이 올가미에 홍윤애가 걸려들게 되었다. 조정철의 죄를 캐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을 이용하려는 김시구의 계략을 미리 눈치 챈 홍윤애는 온갖 고문과 문초에도 굴복하지 않고 죽음으로 맞섰다. 이때가 1781년(정조 5) 윤 5월 15일이었다고 한다. 이후 이 일은 조정으로 비화되어 김시구 목사를 비롯한 金永綏 전 목사, 宋重鉉 전 정의현감, 黃鱗萊 판관 등이 조사를 받고 유배되기에 이르렀고 조정철은 새로 임명된 제주목사 李養鼎, 판관 李亨默, 대정현감 李亮載, 정의현감 李羽晉 등 새로 임명된 목사 일행으로부터 혹독한 국문을 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판관이나 어사가 여러 차례 엄중한 심문조사를 하였지만 끝내 조정철에게서 죄목을 찾지 못하게 되고 같은 해 10월 23일 마침내 무혐의로 풀려나게 된다. 7월 12일에 구금된 후 4개월에 걸쳐 죽음의 질곡을 헤맨 끝에 가까스로 생명을 부지한 조정철은 감옥 속에서 홍윤애의 슬픈 해로성을 들어야만 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천우신조로 조정철이 석방되어 관직에 다시 나아가게 되고 관직에 재 등용 된 지 7년 만인 1811년(순조11)

전라도방어사 겸 제주목사가 되어 제주에 오게 되기에 이른다. 제주로 돌아온 조정철은 홍윤애의 무덤을 정비하고 시 한편을 써서 바쳤으며 또한 조정철과 홍윤애 사이에 태어난 딸을 만나게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 홍랑이 죽기 석 달 전 태어난 그 딸은 당시 서른한 살이 되어 있었으며 곽지 사람인 朴秀榮과 결혼을 해서 1남 2녀를 두고 있었다. 이후 조정철과 홍윤애의 후손인 외손들에 대한 행적에 대하여도 이 책은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¹⁸⁾ 이 이야기는 이후 조정철과 그의 시문집인 『정헌영해처감록』을 알리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며 더불어 제주사회는 조정철에 대한 홍윤애의 가슴 아프지만 아름다웠던 사랑이야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게 된다. 이 시점부터 양주 조씨 종친회와의 교류도 있게 되었으며 그 결실로 1997년 11월 9일에 양주 조씨 사당인 함녕재에 제주여인 홍윤애가 조정철과 함께 봉안되게 된다.

같은 해에 소재영 교수도 그의 책¹⁹⁾에 『정헌영해처감록』을 소개 하고 있다. 특히 이 책에서 소재영 교수는 『정헌영해처감록』을 소상하게 소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헌 조정철과 홍랑전」²⁰⁾이라는 별도의 주제를 가지고 조정철과 홍랑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다. 소재영 교수는 “필자가 「한라일보 주필 홍순만 선생과의 대화 중 홍랑의 이야기를 듣고 그녀의 묘를 찾은 것은 1995년 4월이었다”로 시작되는 이 글에서 홍랑과 정헌의 관계를 다루고 있으며 특히, 이 글 말미에 조정철의 『耽羅雜詠』 33수는 회헌 조관빈의 『耽羅雜詠』 22수와 더불어 후대, 김문숙의 「耽羅竹枝詞」 14수에도 그 맥이 이어진다고 하고 있다. 이후 소재영 교수는 그의 또 다른 책²¹⁾에서 “필자가 홍윤애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 것은 한글학회에서 펴낸 지명총람(제주편)의 짙막한 기사에서부터이지만, 이는 그 후 양순필교수의 학위 논문 가운데서 확인할 수 있었고, 한라일보 홍순만 선생을 통하여 조정철이 홍윤애에게 바친 시비를 확인 할 수 있었다” 고 말하고 있다. 이 역시 조정철과 홍윤애의 이야기를 비교적 자세히 다루고 있다.

한편, 홍순만 선생과 함께 조정철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내는 데 주도적인

18) 위의 책, 65~94쪽.

19) 소재영, 『조선조 문학의 탐구-「조선조 유배인들의 문학-제주지역을 중심으로」』, 아세아문화사, 1997, 126~131쪽.

20) 위의 책, 242~253쪽.

21) 소재영, 『국문학 편답기-「제주의 여인상」』, 아세아문화사, 1999, 330~336쪽.

역할을 한 또 한 사람은 김순이 선생이다. 김순이 선생은 『제주도』 지²²⁾를 통해 『정헌영해처감록』의 내용을 바탕으로 조정철을 다시 한 번 세상에 알리게 된다. ‘제주 목민관 중 가장 드라마틱한 인물-조정철 목사의 숨결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이 글은 지역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 글에서 김순이 선생은 230여 년 전, 제주에 유배를 왔던 한 유배인이 쓴 시문집 『정헌영해처감록』을 바탕으로 그가 제주민들로부터 얼마나 아낌없는 사랑을 받았는가를 알리는 데 주력했다. 이후 김순이 선생은 한라일보 표성준 기자와 공동 집필한 책, 『제주유배인과 여인들』에서²³⁾ 다시 조정철과 홍윤애의 사랑이야기를 다루게 된다. 이를 기점으로 김순이 선생과 표성준 기사는 「한라일보」에 ‘제주유배인과 여인들’라는 기획기사²⁴⁾를 통해 더 많은 사람으로부터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에 이른다. 또한 이러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가운데 당시(2013~2014년) 제주문인협회 회장이었던 김순이 선생 중심으로 2013년, 제1회 홍윤애 추모 문학제를 개최하여 양주 조씨 대종회 조원환 회장을 비롯한 전국적 인사들과 도내 문인들은 물론 전국의 문인들이 참여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연이어 2014년 제2회 홍윤애문학제에서 제주문인협회가 펴낸 『불멸의 연인, 의녀 홍윤애』²⁵⁾는 조정철과 그의 시문집인 『정헌영해처감록』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감당했다. 이 책은 그동안 흩어져 있던 조정철과 홍윤애에 관해 쓴 글들을 한 곳으로 모았을 뿐 아니라 조정철과 홍윤애에 얽힌 이야기를 바탕으로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의 문인들의 문학작품을 함께 실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하겠다. 반면, 『정헌영해처감록』에 대한 지금까지 연구는 이 시문집에 수록된 조정철과 홍윤애와의 관계에 대해서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게 한계라면 한계라고 하겠다.

한편, 조정철의 자취가 발견된 몇 가지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향토사학자 吳文福 선생은 한라산에서 조정철이 새겨놓은 涯刻을 해석하게 된다.²⁶⁾ ‘이 애각은 원래 한라산 동쪽 바위에 있었던 것인 듯 한데 지금은 백록담 물가로 굴러 떨어져 있다. 바위가 동강나버렸기 때문에 판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22) 김순이, 『제주도』 지, 통권 109호, 「탐라역사인물기행-조정철목사 편」, 2005, 8월, 20~46쪽.

23) 김순이, 표성준 저, 『제주유배인과 여인들』, 여름언덕, 2012, 105~136쪽.

24) <한라일보>, 「제주유배인과 연인들-조정철과 홍윤애」, 표성준, 2012, 7월 2일과 9일자.

25) 『불멸의 연인, 의녀 홍윤애』, 제주특별자치도문인협회, 일신옵셋인쇄사, 2014.

26) 『제주도 마에명』, 제주도, 濟州東洋文化研究所, 1999, 125~126쪽, 趙貞□丁酉以前被謫庚戌, 趙貞□辛未以防禦使登.

다만 문맥을 따라 풀이해 보면 다음과 같다. ‘조정철은 정유년(정조 1년, 1777)에 이곳으로 귀양 와서 경술년(정조 14년, 1790)에 풀려났다. 조정철은 신미년(순조 11년, 1811)에 방어사로 와서 이곳 절정에 이른다.’이다.

또한 2004년 12월 25일,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서성리 영당거리에서 조정철 목사의 송덕비가 오문복 선생에 의해 확인되었다. 이 비의 앞면에는 「濟州牧使趙公貞喆萬世不忘碑」라 각이 되어 있으며 건립연대는 정축년 5월이다. 이는 조정철이 제주목사를 마치고 떠난 6년 후에 해당된다.²⁷⁾

연이어 충청남도 수안보에 있는 수옥폭포 수직 절벽 오른쪽 상단에는楷書體로 새긴 ‘趙貞喆’ 세 글자가 양각으로 뚜렷하게 새겨져 있다. 충청도 관찰사 시절 이곳에 ‘漱玉亭’이라는 정자를 짓고 정헌이 정자의 이름을 작명하였다고 소개되고 있다.²⁸⁾

덧붙여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 위원인 박수환선생이 2014년 7월 25일자 서천군 소식지에 ‘忠淸道觀察使 趙貞喆 去思碑’라는 제목으로 소개한 조정철에 관한 기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²⁹⁾

‘조선시대에 많은 관료가 백성을 위해 선정을 베풀고 가면 고을 백성들은 그 관료를 그리워하며 정표로 비석에 글을 새겨 칭송한 비석들을 많이 볼 수 있다. 그 유형을 보면, 善政碑, 愛民碑, 救恤碑, 去思碑, 不忘碑 등이다. 이에 서천읍 신송리(장마루) 버스승강장 옆에 충청도 관찰사 조정철 거사비가 서 있다. 이는 1815년(순조15년) 10월에 세워진 비석으로 우리고장 서천 사람들이 그를 칭송하여 세웠다. 거사비를 세운 내용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순조 13년에 조정철이 충청도관찰사로 부임하였던 해로 전국적인 대 기근으로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자 조정에서 호서지방에 1만석을 진휼한 것으로 보면 그 구휼의 은혜를 잊지 못하여 이 거사비를 세웠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조정철을 다시 한 번 세상에 알리게 된 계기로는 김익수 선생의 노고를 빼놓을 수가 없다. 선생은 2006년에 『정헌영해처감록』 전권을 번역하여 세상에 내놓았다. 이는 지금까지 단편적으로만 이야기 되었던 『정헌영해처감록』의 내

27) 김순이, 『제주도』 지, 통권 109호, 「탐라역사인물기행-조정철목사 편」, 2005, 8월, 44쪽.

28) 김순이, 『제주도』 지, 통권 109호, 「탐라역사인물기행-조정철목사 편」, 2005, 8월, 38~39쪽.

29) 「서천군 소식지」, 제282호, 2014년 7월 25일 자 기사, 6면.

용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시문집을 통해 유배인 조정철이 어떤 사람인가를 구체적으로 알리게 된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헌영해 처감록』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는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그 몇 편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박동욱의 논문 「정헌 조정철의 유배 한시 연구-홍랑과의 사랑을 중심으로」³⁰⁾은 홍윤애가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저간의 사정을 중심으로 사건의 발단과 홍랑의 죽음, 계속되는 고초와 곤욕, 아직도 끝나지 않은 사랑이라는 소재목으로 쓴 논문이다. 박동욱은 이 논문의 결론 부분에서 이 논문의 성과는 첫째, 목사, 현감이 유배인을 다루는 방식의 실제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고 하였으며 둘째, 유배인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 매우 소상하게 그려졌다는 것. 셋째, 유배인의 심리상태가 섬세하게 담겨 있으며 넷째, 유배지에서 만난 여인과의 사랑이 애뜻하게 그려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박동욱의 이 논문은 홍순만선생이 쓴 ‘열녀 홍윤애 전’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며 그 이야기를 요약 정리했다는 데 의의를 둘 뿐이지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본다.

같은 해, 박동욱의 논문 「두 사람의 유배인과 한 명의 제주목사」³¹⁾는 김영수가 제주목사로 있을 때, 제주에 유배를 왔던 두 사람 즉, 趙岨과 趙貞喆, 金永綏의 관계를 이야기한 논문이다. 이 논문은 1778년에서 1781년 사이 제주 목사로 재직했던 김영수가 같은 시기에 제주에 유배를 온 조완과 조정철에게 얼마나 모질게 대했는지를 다루는 내용이다. 여기에서 조완은 본관은 평양으로 그의 집안은 무인이었으며 1776년 尹養厚의 일에 연루되어 1777년 제주목에 유배된 인물이었다. 이 과정에서 조완과 김영수는 동문수학한 사이였다고 소개되고 있다. 이렇게 가까운 사이였지만 목사와 죄인의 신분으로 제주에서 만난 두 사람간의 문제의 발단은 點考에서 시작된다. 점고란 유배인들이 도망가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로서 명부에 하나, 하나 점을 찍어가며 사람의 수효를 조사하는 방식을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 유배인들이 직접 관아에 가서 점고를 받기보다는 양반의 경우에는 아전들이 찾아가 동정을 살피는 일로 대체하는 것이 다반사였다. 이러

30) 박동욱, 「靜軒 趙貞喆의 유배한시 연구-홍랑과의 사랑을 중심으로」, 溫知論叢, 제17집, 溫知學會, 2007.

31) 박동욱, 「두 사람의 유배인과 한 명의 제주목사 : 조완, 조정철, 김영수」, 문헌과 해석, 통권 50호, 문헌과해석사, 2010.

한 점고는 정기적 점고와 부정기적 점고가 있는데 김영수는 수시로 점고를 가하였던 걸로 나타나 있다. 김영수는 점고 시 털모자를 쓰고 나타난 조완에게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털모자를 벗겨 찢어 버리는 모욕을 주게 된다. 결국 이 일이 빌미가 되어 조완은 병이 들게 되었고 결국 죽게 된다. 그리고 난 후 조완의 사후에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을 통해 유배인에 대한 과도한 탄압을 가한 김영수의 소행을 소개하고 있다.³²⁾ 그리고 또 한 사람인 조정철에 관한 이야기이다. 김영수는 유배인 조정철에게 독서를 금지시키는 가장 힘든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난방이나 사람들의 왕래, 소소한 식사와 관련된 일 등 조정철과 관련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였다고 소개하고 있다³³⁾ 그리고 나서 논문 말미에 박동욱은 ‘기억이란 때때로 공정치 않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好惡는 절대적인 잣대가 있다기보다는 타인과의 거리에 기인한다. 제주 목사와 유배인이란 상반된 지위로 만난 그들의 경우도 그럴 수 있다는 견해를 보인다. ³⁴⁾

그러나 박동욱은 이 논문에서 김영수 목사가 왜 그렇게 조정철에게 가혹하게 대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빠져 있다. 조정철이 당시 이렇게 박해를 받은 것은 당쟁으로 얼룩진 정국과 함께 여느 유배객과는 다른 정현의 상황을 고려하여야 함에도 박동욱은 이 부분을 간과한 것이다.

또 다른 박동욱의 논문 「한시에 나타난 유배객의 생활모습-『정현영해처감록』을 중심으로」³⁵⁾를 살펴본다. 조선시대 유배객들이 유배지에서의 생활모습을 다룬 이 논문은 다른 유배객들에 비해 조정철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유배생활을 하였는가를 비교하고 있다. 비교 대상으로 등장하는 유배인으로는 다산 정약용과 추사 김정희였다. 그는 이 논문 말미에서 제주 유배기간 동안 정현이 받은 고초를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다양한 방식의 감시와 규제는 유배생활을 더욱 더 어렵게 만들었다. 그 중 특히 점고는 유배객에게 굴욕감과 자괴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일부러 새벽에 집합을 시키기도 했으며. 추위에 한잠을 세워 두기도 했다. 독서는 철저히 금지시키고, 서적을 소유하는 것도 읽는 행위도 감시하고

32) 논문, 151쪽~156쪽.다1)

33) 위의 논문, 156~161쪽.

34) 위의 논문, 161쪽.

35) 박동욱, 「한시에 나타난 유배객의 생활모습-『정현영해처감록』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38권, 3호, 통권 147호, 한국어문교육연구원, 2010. 381~409쪽.

막았다. 글을 읽는 사대부에게 가장 견디기 힘든 제재 수단이었다. 또, 서신의 반입과 반출을 금지시켰다. 이는 유배객을 완전히 고립시키려는 목적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이로 인해 부모형제의 생사도 확인할 수 없었으며 문밖출입도 용이하지 않았고 더 나아가 다섯 집이 유배객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정도로 철저했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정현이 그 어떤 유배인보다 혹독한 탄압을 받은 데는 남다른 이유가 있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 논문에서는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소 아쉬움으로 남는다.

한편, 강문규는 계간지 『삶과 문화』에 「悲戀의 자취를 남긴 유배인 조정철」이라는 제목으로 글³⁶⁾을 발표하게 된다. 김익수 선생의 역으로 펴낸 『정현영해처감록』을 토대로 작성되었음을 명기한 이 글은 『처감록』 전체를 몇 가지 주제로 나누어 이야기하고 있다. 조정철이 유배를 오게 된 이유와 유배인으로서의 어려움, 정치적으로 관련이 있던 관리들의 탄압, 홍윤애와의 사랑, 100일 동안 감옥에서의 생활과 「橘柚品題」에 관한 소개를 하고 '亭樓'에 관한 기록과 정의현에서 배소되는 과정에서의 노정, 「耽羅雜詠」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처감록』에 대한 전체적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하는 정도의 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은 우선 제목에서도 느낄 수 있지만 유배인 조정철의 비극적 삶에 포커스를 맞췄다는 생각이다. 정현이 제주민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애정과 그 애정이 어떻게 정현의 의식의 흐름에 영향을 끼쳤는가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고 있지 않다.

다시 박동욱의 논문 한 편을 더 살펴보면 「조정철의 「耽羅雜詠」 연구」³⁷⁾가 그것이다. 그는 이 논문의 결론 부분에서 조정철은 제주의 풍속과 풍토에 대해서 아주 혹독하게 비판하고 있으며, 특히 제주의 풍속에 대해서는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극단적 차별로 인식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조정철이 유배객이라는 신분적 특성상 제주라는 공간에 대한 부정적 함의를 태생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보여 준다고 했다.

또한, 관원들의 실명을 직접 공개하면서 관원들의 사건의 전말을 드러내고

36) 강문규, 「비련의 자취를 남긴 유배인 조정철」, 『삶과 문화』, 38호, 상 55~59쪽, 39호, 하, 52~56쪽, 2010.

37) 박동욱, 『조정철의 「耽羅雜詠」 연구』, 동양한문학연구 제3집, 동양한학회, 2011.

또 저간의 사정을 확실히 알 수 있게 原註까지 다는 일은 시문에서 극히 드문 일이며 이 기록들은 유배인이나 제주민들이 관원들에 의해서 어떠한 취급을 받았는지 파악하는 데 큰 도움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³⁸⁾ 박동욱은 또 이 논문의 결론 부분에서 정헌은 철저하게 入島人의 시선에 치우쳐 제주를 바라보고 있다는 점은 일정한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중요한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 『耽羅雜詠』에 나타난 정헌의 시각이 박동욱의 견해처럼 입도인의 시선에 치우치고 있다면 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박동욱은 그렇지 못했다. 이러한 견해는 「정헌영해처감록」 전체를 통해 나타난 정헌의 의식의 흐름을 파악하고 나서 그 근거 위에 자신의 주장을 제시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데서 오는 오류라고 여겨진다. 다시 말하면 이 시문집 중 어느 한 곳 즉, 『耽羅雜詠』만 따로 분류하여 연구를 한 지엽적인 연구가 갖는 한계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入島人의 시선에 치우쳐 제주를 바라보았다고 단정 짓는 박동욱의 견해는 다소 무리가 있다 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근거는 차후 『耽羅雜詠』에서 논의하도록 하겠다.

이렇듯 정헌에 대한 연구 성과가 빈약한 것은 『처감록』에 실려 있는 시가 모두 제주 유배기에 제주도에서 지어진 것으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전통사회에서 유배는 형벌의 하나지만 문학 창작의 입장에서 보면 유배는 오히려 좋은 계기를 마련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유배기간 동안 주어진 모처럼의 시간에 각고의 노력을 통해 훌륭한 문학작품을 남긴 문인이 적지 않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자기 처지를 비관하고 한탄에 잠기기도 하지만 또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기회로 삼았기 때문이다. 유배를 다룬 문학은 다양한 표현 형태를 사용했다. 산문도 있고, 시가도 있으며 한문으로 쓰기도 하고 국문을 택하기도 했다. 그중 ‘가사’에서는 유배된 처지를 천상백경에서 하계로 추방된 ‘謫降’이라고 했다. 이러한 문학의 표현 형태 중 유배 한시는 한문학의 새로운 경지를 보여 주었다고 할 수 있다.³⁹⁾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정헌의 『처감록』은 시문집이기에 앞서 18세기 제주의

38) 박동욱, 「조정철의 탐라잡영(耽羅雜詠) 연구」, 동양한문학연구 제3집, 동양한문학회, 2011, 274쪽.

39) 조동일, 「유배문학의 특성과 양상」, 『한국문화연구』 9, 이화여자대학교한국문화연구원, 2005, 7쪽.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한 눈에 들여다 볼 수 있는 귀한 사료집이라 할 수 있다. 이 시문집을 읽어 본 사람은 누구나 정헌이 일부 제주민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알 수 있다. 이는 유배기간 뿐만 아니라 해배 이후 정헌이 보여 준 행보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대부분의 유배인들은, 아니 거의 모든 유배인들은 자신이 유배되었던 그 곳에, 그것도 목민관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는 거의 드물기 때문이다.

하여, 본고는 이 시문집을 바탕으로 유배객 정헌의 시 세계를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헌영해처감록』이 가지고 있는 유배문학 상의 위치를 재확인하고자 한다.

II. 『靜軒瀛海處坎錄』의 시 세계

정헌의 제주유배생활을 크게 나누어 보면 제주목과 정의현에서의 유배 생활로 대별될 수 있다. 이는 유배장소에 따라 분류된 것이기도 하지만 더 엄밀하게 말한다면 정헌의 시 세계에 있어서 뚜렷한 의식에 변화가 일어난 시점을 기준으로 나누었다고 볼 수 있다.

낮선 땅 제주에서 정헌은 높은 습도와 잦은 바람, 그리고 식수에 대한 어려움, 더불어 이질적인 언어와 풍속에 대한 고통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그는 또한 이곳, 제주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고통을 받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였다. 정헌이 제주목에서 정의현으로 이배된 이 무렵부터 제주를 바라보는 시각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이것을 그는 연작시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

그의 종조부인 회헌 조관빈은 그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헌영해처감록』에는 회헌의 시를 차운한 것이 많다. 그 대표적 작품이 「耽羅雜詠」이다. 그러나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정헌의 「耽羅雜詠」과 회헌의 「耽羅雜詠」은 그 접근방법에 있어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靜軒瀛海處坎錄』의 시 세계를 ‘제주목 유배기’와 정의현 유배기’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1. 제주목 유배기

어려서부터 제주에 대한 꿈을 자주 꾸었으며 제주에 도착하여 본 풍경도 그리 낯설지 않았다⁴⁰⁾고 정헌은 고백하고 있다. 그러나 막상 유배인의 신분으로 도착한 제주는 그리 만만치가 않았다. 습한 기후와 잦은 바람, 통역이 없이는 알아들을 수도 없는 제주어 그리고 낯선 풍속들은 이곳, 제주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견디기 어려웠음을 정헌은 그의 시문 곳곳에서 토로하고 있다.

먼저 제주목에서의 유배생활을 살펴보면 ‘제주의 자연환경과 풍속’ 그리고 ‘제주에서 만난 사람들’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제주의 자연환경과 풍속

제주에 유배 온 대다수의 유배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유배객 정헌도 예외는 아니었다. 제주는 습하고 덥고 벌레가 많아 견디기 어려운 곳이었다. 『처감록』 곳곳에 제주의 자연환경에 대해 말하는 시를 찾아보기는 어렵지 않다.

| | |
|----------------------|----------------------|
| 客況曾憂瘴 | 나그네 하물며 일찍 장기에 괴로웠거늘 |
| 天時又苦炎 | 계절이 되니 또 더위에 시달리네 |
| 濕雲蒸繞屋 | 습기 찬 구름이 집을 에워싸고 |
| 火日赫臨簷 | 타오르는 태양 처마 끝에 있네 |
| 病暈黃梅想 | 기갈에 시달리니 황매가 생각나고 |
| 迎風白苧嫌 | 바람을 쏘이려니 모시 옷이 싫어하네 |
| 欲眠還不得 | 자려 해도 도리어 잠 오지 않고 |
| 頽壁蝨蠅兼 ⁴¹⁾ | 헐 벽은 전부 좀벌레와 파리떼. |

40) 『處坎錄』, 원문 45면, 번역본 107쪽.

이 시는 제목 그대로 더위에 시달리는 모습을 읊은 시이다. 시인은 장기 즉, 풍토병을 오래 앓았던 것 같다. 게다가 여름이 되자 더위에 시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위를 표현하고 있는 시구가 아주 실감난다. ‘습기찬 구름이 집을 에워싸고 해가 처마 끝에 있는 것 같다’는 표현이 그것이다. ‘기갈에 시달리니 황매가 생각난다’고도 하였다. 기갈에 매실을 생각한다는 표현은 약간은 상투적인 느낌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다음 구절의 ‘바람을 쏘이려니 모시옷이 싫어’ 한다고 한 표현은 그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여유를 잃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 바람 한 점 느낄 수 없는 더위에 시달리다 보니 걸치고 있는 바람 잘 통하는 모시옷이 오히려 바람을 싫어하여 막는 것 같다는 의미인데 해학이 돋보이는 구절이다. 여기에 벽체가 군데군데 헐어 벌레들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는 표현은 주거 환경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상황도 이와 같음을 우회적으로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 |
|------------------------|-----------------------------|
| 耽羅炎熱甚洪爐 | 탐라의 무더위 화로보다 더 한데 |
| 況也灣風世所無 | 하물며 미개한 풍속 세상에 없네 |
| 穉黍過墻渾謂蜀 | 어린 기장이 담장 넘게 자라니 촉이라 할 만 하고 |
| 老牛喘月合稱吳 | 늙은 소가 달 보고 헐떡이니 오나라와 똑같네 |
| 毒蚊咬處眠難穩 | 독한 모기에 물려 편히 잘 수 없고 |
| 濕瘴蒸時渴欲殊 | 음습하여 찼 때면 더위에 죽을 지경 |
| 謫裏生涯堪一喟 | 유배 온 인생 한숨 쉬며 견디니 |
| 奇窮天下孰如吾 ⁴²⁾ | 몹시 곤궁함 천하에 누가 나 같을까 |

제주의 기후를 말하면서 풍속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 시는 농사짓는 것이나 기후는 중국의 촉이나 오 지역과 같은데 모기는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사납고 날씨는 습하다는 말로 귀양살이의 어려움을 말하고 있다. 첫 연에서 정현은

41) 「苦炎」, 『정현영해처감록』, (김익수 역, 『정현영해처감록』, 제주문화원, 2006) (이하 『처감록』으로 줄인다.) 원문 48~49면, 번역본 116쪽. (이 책은 뒷면에 원문 영인을 해놓았고, 앞에 원문을 밝히고 번역문을 실어놓았다. 본고에서는 이 책의 면수를 원문은 000면, 번역문은 000쪽으로 출전을 밝히기로 한다.) (이하 번역은 김익수의 번역을 참고하였다.)

42) 「雜詠」, 48면, 115쪽.

이것을 종합적으로 말하여 제주의 더위를 화로보다 더 덥고, 풍속의 야만스러움은 세상에 다시없다고 하였다. 그는 이곳에 귀양 온 자신의 처지에 대해 ‘천하에 누가 나 같은가’ 라고 절망적으로 인식하였다.

그가 제주의 기후와 풍속에 대해 이처럼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물론 제주의 더위가 더없이 견디기 어려웠던 것도 있었겠지만 자신의 처지, 그 자체가 더없이 초라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 | |
|----------------------|--------------------|
| 天下最惡地 | 세상에서 가장 나쁜 곳 |
| 莫如耽羅境 | 탐라 같은 곳 없네 |
| 毒霧仍濕瘴 | 심한 안개에 습한 풍토병 |
| 腥塵更濁井 | 비린내 나는 먼지에 탁한 우물 |
| 蜈蚣走曉壁 | 새벽에는 지네가 벽을 기어 다니고 |
| 蛇虺逼夜席 | 밤에는 독사가 잠자리를 위협하네 |
| 久閱肺腸病 | 폐장병을 오래 겪으니 |
| 驟看心眼愕 | 오랜만에 보면 마음과 눈이 놀라네 |
| 罪籍吾爲大 | 나의 죄 크기에 |
| 是以此島謫 ⁴³⁾ | 이런 때문에 이 섬에 유배되었지 |

‘세상에서 가장 나쁜 곳 탐라 같은 곳 없네’ 이렇게 시작하는 이 시편은 육지에서 온 유배객에게 있어 제주의 날씨는 정말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임을 잘 드러낸 구절이다.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제주는 다른 지역에 비해 습도가 매우 높다. 심한 안개로 인한 풍토병과 오염된 식수로 인한 폐장병 그리고 지네와 독사가 잠자리까지 위협하는 상황을 들어 ‘탐라를 세상에서 가장 나쁜 곳’이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는 푸념을 하듯 ‘나의 죄가 크기에 이런 때문에 이 섬에 유배되었지’라며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다. 이러한 푸념은 분노를 표현하는 또 다른 방식이다. 이 시 전체의 분위기로 보았을 때, 정헌 자신이 체념 비슷한 푸념을 통해 자신의 분노를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날씨는 인간의 삶 자체를 바꾸어 놓는다. 결국 날씨로 인해 사람들의

43) 「詠惡況」, 117면, 245쪽.

풍속도 바뀌게 되는데 이러한 風俗의 또 다른 표현은 風氣다. 이 말은 ‘옛날부터 그 사회에 행하여 온 사람의 생활 전반에 걸친 습관’⁴⁴⁾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이 정의에 따르면 기후는 풍속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한 사회의 생활 전반에 걸친 습관에 가장 먼저 영향을 끼치는 것이 기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에 기후가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가는 동서고금 문헌을 통해 모두 잘 아는 바이다. 이렇듯 기후가 그 사회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그 영향은 사회 전체에 영향을 끼쳐 주민들 사이에 풍속으로 굳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헌이 처음 본 제주는 이처럼 매우 부정적인 모습이었다.

| | |
|-------|---------------------|
| 大抵耽羅島 | 대개 탐라라는 섬은 |
| 人心天下惡 | 인심이 천하에 고약해 |
| 遠難宣王化 | 멀리 떨어져 왕화를 펴기 어렵고 |
| 近易染倭俗 | 가까운 일본 풍속에 쉽사리 물드네 |
| 太守是蹶張 | 태수는 용맹한데 |
| 肉食惟貪黷 | 육식을 오직 욕심내고 |
| 校猾吏又甚 | 장교는 교활하고 아전들은 더 심하니 |
| 甚者多齷齪 | 모두 다 악착같네 |
| 尋常言語際 | 보통 하는 말도 |
| 巧黠兼奸毒 | 교활하고 독살스러워 |
| 當面若垂綆 | 마주해서는 올가미를 놓은 것 같고 |
| 背立便下石 | 돌아서서는 곧 돌을 떨어뜨리네 |
| 老小無等序 | 늙은이 젊은이 순서가 없고 |
| 骨肉爲仇敵 | 골육간에 원수가 되네 |
| 五倫已莫辨 | 오륜은 말할 것 없으니 |
| 四維違言責 | 사유를 어느 겨를에 탓하라 |
| 可憐青衿士 | 가련한 선비들 |
| 猶未展所學 | 오히려 배운 것도 펴지 못해 |

44) 김민수 외, 『국어대사전』, 금성출판사, 1992, 3268쪽.

| | |
|----------------------|----------------------|
| 口誦聖賢語 | 입으로는 성현의 말씀 외우나 |
| 嗾官先鞭扑 | 관원을 꼬드겨 먼저 채찍질 부추기네 |
| 吾人自畏約 | 나 같은 사람 저절로 잡도리도 두려워 |
| 來客一例辟 | 오는 손님 한결같이 물리치고 |
| 終日虛簷下 | 온종일 빈 처마 밑에서 |
| 寂寂垂簾箔 ⁴⁵⁾ | 쓸쓸히 대밭을 드리우네 |

그러한 시각은 이 시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다. ‘오류는 이미 말 할 것 없으니 사유를 어느 겨를에 닳하여 말하라’는 이 구절에서 사유란 나라를 다스리는 데 필요한 네 가지 강령인 禮, 義, 廉, 恥를 말한다.⁴⁶⁾ 결국 정헌은 오류와 사유가 이 곳 제주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음을 이 시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이는 유형지 제주라는 귀양지에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을 엮어 함께 그 불만을 토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2) 제주에서 만난 사람들

이처럼 제주의 자연환경과 풍속은 정헌으로 하여금 제주를 세상에서 가장 나쁜 곳이라 여겨지게 했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환경과 풍속보다 정헌의 귀양살이를 더 치명적으로 어렵게 만들었던 것은 관리들의 탄압이었다. 정헌의 유배생활을 살펴보면 그 뿌리가 시파 벽파의 싸움에까지 닿아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정조 등극 직후에 일어난 역모 사건은 벽파의 반란이었으며, 역모에 관련되었으면서도 사형을 받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조부 조태채의 훈김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정헌은 유배지인 제주에서 목사나 현감의 당색이 다르면 언제든지 혹독한 탄압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결국은 유배지에서 만난 관리들이 어떤 사람이나에 따라 유배생활의 향배가 갈리게 되는 것인데 이런 이유 때문에 정헌은 제주에 유배된 그 날부터 다른 유배인들보다 더욱 더 혹독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다.

45) 『歎島中人心 漫書古體』, 117~118면, 247쪽.

46) 『처감록』, 김익수 역, 제주문화원, 2006. 248쪽.

| | |
|------------------------|-----------------------------|
| 浮萍身世却茫然 | 부평초 신세 다시 망연히 |
| 大海中間已一年 | 넓은 바다 가운데서 벌서 1년 |
| 罪且傳生吾主聖 | 죄입음에도 우리 성주께서 살리셨거늘 |
| 飢將置死牧官偏 | 목관이 부당히 굶어 죽게 하네 |
| 難同舐掌棲棚獸 | 발바닥 핥고 시렁에 사는 짐승처럼 살기는 어려우니 |
| 易學緘唇在樹蟬 | 나무 위 매미처럼 입 다물기는 쉽게 배우네 |
| 可笑今來無俗累 | 가소롭구나, 요즘 세속에 없는 일 벌이니 |
| 鼠肝蟲臂任蒼天 ⁴⁷⁾ | 하찮은 몸 푸른 하늘에 맡길 수밖에 |

이 시는 판관 慶來運이 자신을 괴롭힌 일을 쓴 시로, 그가 양식을 얻지 못하게 하여 굶어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내용이다. 경래운은 1777년(정조 1년) 8월에 제주판관에 부임하여 1780년(정조 5년) 6월에 파직하여 이임하였다.⁴⁸⁾ 위 시의 原註에서 밝힌 바와 같이 慶來運과 정현은 전부터 안면이 있었던 것이다.⁴⁹⁾ 그러나 정현은 그의 하는 것이 바르지 않아 얼굴조차 해주지 않았다. 정현이 제주에 귀양 왔을 때 그도 공교롭게 판관으로 제주에 왔다. 경래운은 이 상황을 이용해 그 때의 일을 양값음 할 요량으로 유독 정현에게 혹독하게 대하였다. 데리고 온 단 하나의 종놈을 도착한 날 즉각 잡아가두었다가 돌려보내버리고, 들어온 쌀 포대를 육지로 돌려보내버리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심지어는 “굶어죽게 이 작자의 본분이고 조정에서 그를 절도에 안치하는 뜻이니 어찌 그에게 배불리 밥 먹게 하겠는가, 구차하게 살게 하는 게 내가 만들어 행할 바이니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며 더욱 정현을 몰아 붙였다. 그야말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현은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 그렇다고 동면에 든 곰이 배가 고파 발바닥이나 핥고 있는 것처럼 살기도 쉽지 않다.⁵⁰⁾ 입 다물기도 쉬운 것

47) 「半刺慶來運 酷禁糧道 顛頷之患 將至飢死 恐不能副我聖上好生之德 遂拈韻賦 一律以志」, 44면, 105쪽.
 48) 위의 책, 44~45면, 106쪽.
 49) 같은 곳, 慶來運 卽賤隸 發身者 而以其所從來不正 故難出入余門下 不曾賜顏
 50) 위 시 중 ‘難同舐掌棲棚獸’에서 ‘棚’은 ‘鵬’의 오자가 아닌가 생각된다. ‘棲棚獸’는 전거를 찾을 수가 없다. ‘棲鵬’은 글자 그대로 나무 위에 있는 올빼미인데 소식의 「秋懷詩」에 “廳前有棲鵬/夜嘯如狐狸”라는 구절이 있다.

은 아니다. 입을 벌려 말을 할 수가 없을 뿐이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정헌은 ‘죽어서 임금님의 호생지덕에 부응하지 못할까 염려하였다’는 것이다. 임금도 함부로 하지 않는 목숨을 일개 목관이 좌지우지하는 이런 일들은 세속에 없는 일. 삼시간에 하찮은 몸이 되어버린 목숨을 푸른 하늘에 맡길 수밖에 없음이 다만 애통할 따름이었다고 하고 있다.

| | |
|------------------------|--------------------------|
| 夕死朝聞古有言 | 아침에 도를 듣고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옛말 |
| 不曾漢世是非喧 | 일찍이 한나라 때에는 시비가 없었는데 |
| 方當聖代右文日 | 바야흐로 태평성대에 우문하는 시절에 |
| 奚禁謫廬讀魯論 ⁵¹⁾ | 어찌 적려에서 논어를 읽지 못하게 하는가. |

이 시는 金永綏 목사에 대한 것이다. 김영수는 1778년(정조2년) 12월 제주 목사로 도임을 하자마자 정헌이 책 읽는 것을 금지시켰다. 이는 옛날에도 없었던 일이었다. 일찍이 공자는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하였다. 유배인의 신분이기엔 언제 죽을지도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도를 듣고 저녁에 죽을 수 있도록 더 책을 가까이 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임 목사 김영수는 이것마저 막고 있다. 이는 유배역사 상 매우 드문 일이었다. 정헌은 책을 읽지 못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자신의 유배생활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감하는 대목이라 하겠다. 김 목사의 괴롭힘은 심지어 쌀밥을 먹는지 의심하여 목사와 관관이 날마다 살피고 다니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⁵²⁾ 날이 갈수록 관가의 명령이 엄격해지고 독서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된 정헌의 수심은 깊어질 수밖에 없었다.

조정철이 당시 이렇게 박해를 받은 것은 여느 유배객과는 다른 정헌의 상황을 고려해야 이해할 수 있다. 당쟁으로 얼룩진 정국과 함께 정조시해 음모 사건을 일으킨 세력은 노론 벽파의 대표적 가문인 홍계희집안이다. 홍계희는 정조의 아버지인 사도세자를 죽게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그의 아들 홍지해는

51) 위의 책, 「新牧使金永綏 禁謫客看讀 此則前古所無之事 而朝聞夕死之義 已矣不可見 余亦方讀論語 未免停工賦一絶」, 66면, 163쪽.

52) 「牧伯半刺疑余食大米飯 逐日廉察 而多在食時云 眞是酷政也 漫書一律」, 80~81면, 196쪽.

조카 홍상범과 함께 암살단을 궁중에 난입시켜 정조를 시해하려는 초유의 사건을 일으켰다. 조정철의 아내 남양 홍씨가 바로 이 홍지해의 딸이었던 것이다. 정헌의 증조인 조태채가 영조를 왕이 되게 한 노론 사대신이어서 사형을 면한 대신 유배형에 처해진 것이 불행 중 다행이라면, 처가 식구들이 시해 주모자들이었기 때문에 유배지에서 가혹한 감시와 압박을 받았던 것 역시 피할 수가 없었던 이유였다.⁵³⁾

| | |
|----------------------|-------------------|
| 未歸多苦惱 | 돌아가지 못하여 고뇌 많고 |
| 不死飽窮奇 | 죽지 못하니 궁핍함만 많네 |
| 舊我猶今我 | 옛날의 나 지금의 내가 똑같고 |
| 前規是後規 | 옛날의 규율이 훗날의 규율 되네 |
| 世情人下石 | 세상 사람들은 돌을 던지고 |
| 官政吏窺炊 | 관원들은 밥 짓는 걸 조사하네 |
| 萬事堪成笑 | 모든 일 건디며 웃어버리고 |
| 迢然但詠詩 ⁵⁴⁾ | 한적히 다만 시를 읊네. |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고향, 굶주림 속에 겨우 연명한 목숨,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사람인데 감시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처지. 세상 인심은 손바닥 뒤집듯 하였고, 관원들은 적거에 찾아와 밥 짓는 걸 조사하니 그저 웃으며 견딜 수밖에 없음을 토로하고 있는 정헌은 체념할 수밖에 없었다.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오래 겪다 보면 때론 체념이 약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정헌의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로였다.

당시의 상황을 정헌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내가 굶주리고 병들어 억울한 곤궁 속에 초체하게 메말라 도랑구렁이에 메워져 헐떡거리며 다만 12월 30일에 이르기까지 변화가 없음에도 목사 김영수와 권세부리는 비장, 간사한 관리가 내 얼굴이 통통해지고 색깔이 두툼해졌으니 반드시 쌀밥을 먹은 것일 터이니 그 출처를 찾아내야겠다고 말하고는 사방으로 조사를 하며 공갈을 쳐 보수가 곤액을 당함이 날로

53) 김순이, 표성준 저, 『제주유배인과 여인들』, 여름언덕, 2012, 113~114쪽.

54) 위와 같은 곳.

심하였다.⁵⁵⁾

이 내용은 정헌이 쓴 시의 제목으로 김영수가 정헌에게 얼마나 심하게 굴었는지가 세세하게 나타나 있다. 김영수의 탄압은 정헌 뿐 아니라 보수 주인 申好⁵⁶⁾에게까지 그 화가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정헌이 제주목에 안치되었을 때 申好家에서 3년을 있었고 다음에는 金潤才家에, 이후 정의현으로 이배된 후에는 金應貴家가 그의 배소가 되었다.⁵⁷⁾ 그러나 정헌은 ‘나물국에 보리밥으로도 오히려 배를 채우기 어려웠으니, 비록 날마다 몰래 살피고, 날마다 부정이 나 없나 캐내려 하나 나는 걱정될 게 없었다’고 하며 하물며 죽고 사는 것은 명에 달렸고 임금님의 은혜는 하늘 같으니 혹독한 관리라 한들 어찌하겠는가.’⁵⁸⁾ 하면서 시를⁵⁹⁾ 지어 마음을 달래고 있다. 이렇듯 부임하는 목사들이나 관리들이 다른 그 어떤 유배인들보다 정헌을 더 혹독하게 다루었던 이유는 앞에서 밝힌 바 있다.

이렇듯 유배 기간 동안 정헌을 괴롭힌 것은 육지에서 온 관리들만이 아니었다.

| | |
|------------------------|------------------------|
| 現在世何多業冤 | 세상에 억울한 업보 어찌 그리 많은지 |
| 見聞種種使驚魂 | 보고 듣는 가지가지 혼을 놀라게 하네 |
| 指無謂有憎茲口 | 따져보면 아무 것도 없는데도 미워하여 |
| 助浪推波痛彼言 | 파도가 치듯 그 말이 아팠네 |
| 欲察通書元沒跡 | 편지 왕래 살펴도 원래 자취 없고 |
| 縱疑謀食豈其痕 | 식량 구한다 의심해도 어찌 흔적 있으리 |
| 孤臣賴得明王在 | 외로운 신하 밝으신 임금의 신뢰 얻었거늘 |
| 奈爾耽羅官吏昏 ⁶⁰⁾ | 어찌 저 탐라 관리들 어두운가. |

55) 위의 책, 「余飢病冤窮 樵枯槁 溝壑之填 迫在呼吸 不啻若臘月 三十日消息 而牧伯金永綬與其權裨猾吏 謂余面豐厚而色敷腴 必食大米飯 適欲鉤探其出處 四面廉察恐喝 保授困厄日甚」 111~112면, 234쪽.

56) 위의 책, 192~193면, 403쪽.

57) 趙源煥 編著, 『楊洲趙氏史料選集』, 保景文化史, 1994, 890쪽.

58) 『처감록』, 111~112면, 234쪽, 然蔬羹麥飯 猶難充腸 則雖日窺伺而日摘奸 余無所優矣 況死生有命君恩天大酷吏其如余何哉.

59) 위의 책, 「無瑞歲月去迢迢 / 萬事隨緣臥寂寥 / 謫恨窮溟悲短髮 / 官威飢處禁長腰 / 死應無戀冤惟大 / 生赤何爲病不調 / 莫怪詩篇多苦脆 / 逐臣哀淚易飄飄」, 111~112면, 234쪽.

李顯大는 제주의 아전이었다. 辛丑年 (1781, 정조5) 목사 金蓍耆의 계약에 말려 정헌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그는 7개의 죄목⁶¹⁾을 만들어 정헌을 옥죄었다. 戊戌年(1778, 정조2)에 정헌은 이현대, 李仁基를 중개하여 편지를 전달하고 이현대의 전복 따는 역을 탈면하게 한 일이었다. 이 일이 7죄목 중의 하나가 된 것이다.⁶²⁾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현대가 자신의 안녕과 출세를 위해 정헌을 원수 보듯 하는 것을 보고 현재 일어나는 이러한 일은 업보에서 오는 것이라 체념하면서도 그 억울함에 혼이 놀라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목사 李文懋에게 충애를 받으려고 이현대가 정헌의 거처에 출몰하여 죄인의 동정을 살피지만 아무런 흔적도 발견할 수 없게 되자 증오와 험한 말로 상처를 주고 있는 이현대 때문에 정헌은 몹시 괴로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주에 귀양 와서 온갖 탄압을 도맡아 받았던 정헌은 그의 말을 빌자면 제주 사람 살 곳이 못되는 곳이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일부 제주민들로부터는 적지 않은 도움을 받은 인물이 또한 정헌이다. 정헌은 이들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고 시를 남기기도 했는데 그 몇 사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살펴볼 사람은 李昌夏다.

| | |
|------------------------|-------------------------------|
| 孤燈相對兩懷寬 | 외로운 등불을 마주하며 두 사람의 회포가 너그러웠으니 |
| 終始深誠四載間 | 4년간 시종 정성이 깊었는데 |
| 海露一聲窸窣掩 | 바다 안개 한 소리에 무덤으로 덮히니 |
| 靑山漠漠海漫漫 ⁶³⁾ | 푸른 산 아득하고 바다는 드넓어라. |

李昌夏는 제주 사람인지 아니면 정헌처럼 귀양 와 있던 사람인지 확인되지는 않지만 다만 위 시의 분위기로 보아 평범한 백성이 아니라 글을 읽는 선비인 것으로 추정된다. 어쨌든 그는 정헌이 제주에 유배된 뒤 때때로 정헌의 적거를

60) 「濟州吏李顯大 卽辛丑作孽之一也. 今又仇視我. 而方納賂要寵於牧使李文懋 出沒探罪人動靜云 不勝可怕書此寓懷」, 299~300면, 614쪽.

61) 위의 책, 198~199면. 420쪽. ,按查七罪目 一曰文通京商李天柱通書運糧 二曰頗給李顯大鮑作之役 三曰自稱輕罪 四曰人以進賜稱之而不辭安受 五曰觀點不屈伏 六曰潛奸邑婢 七曰肆然書羅誣二字.

62) 위의 책, 198~199면, 419쪽.

63) 「自余入島之初 有李君昌夏 時時來謁 以慰孤懷 其誠可尚 今聞病歿就地 不勝慘然 吟此一絕」 159면, 377쪽.

찾아와 그의 벗이 되어준 사람이었다. 가장 힘든 유배초기 시절, 그는 4년 동안 수시로 정헌을 찾아와 귀양살이의 어려움을 위로하고 격려해 준 사람이었다. 그야말로 캄캄한 어둠 속과 같은 유배지에서 희미한 등불을 마주하듯 마음을 달래 주었는데 그런 그가 병으로 죽었다는 소식은 정헌에게 큰 충격이었다. 정헌은 이창하의 부음을 듣고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해 이 시 한편을 남긴 것이다. 이렇듯 이창하의 죽음은 정헌을 더욱 고독하게 하였던 것이다. 푸른 산은 더욱 더 아득하고 넓은 바다는 더 넓어 보인다고 회고하는 걸 보면 알 수 있다. 그만큼 심적으로 李昌夏를 많이 의지하며 지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정헌이 제주에 유배되었을 때 많은 도움을 준 사람들 중의 한 사람이 첫 보수 주인인 申好였다.

| | |
|----------------------|--------------------------|
| 千里蓬萍跡 | 천리 떠도는 부평초 자취 |
| 三年主客情 | 3년 동안이나 주인과 나그네의 정이었네 |
| 飽飢須爾力 | 굶주림과 배부름이 모름지기 그대의 힘이었으니 |
| 生死媿吾名 | 삶과 죽음에서 부끄러운 내 이름 |
| 忍說囊頭厄 | 차마 말하랴, 낭두를 쓴 곤욕 |
| 深嘉結舌誠 | 너무 가상하네, 말 할 수 없는 성의 |
| 君恩移善地 | 임금의 은혜로 좋은 곳 옮겨가는데 |
| 臨別意難平 ⁶⁴⁾ | 이별의 자리 마음이 평안치 않네. |

신호는 유배객 정헌으로 인해서 심한 고초를 겪었다. 신호는 정헌이 처음 제주에 귀양 와서 3년이나 머물렀던 집 주인이다. 정헌은 정조 1년 (1777년) 9월 11일 제주목에 안치된 후 申好의 집에서 3년을 지냈고, 다음에는 州吏 金潤才家에 配所가 마련되었다. 그러다가 정조 6년(1782년)에 旌義縣으로 移配되기에 이른다.⁶⁵⁾ 원인은 어사 朴天衡의 계 때문이었다.⁶⁶⁾ 이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다.

64) 「舊主人申好 三年善待余 其誠可感. 按查時 以余之罪 橫被訊問 毒楚之下 辭直不屈. 其妻赤施九次周牢 終始發明矣. 又有李光福者 以兇變*干連 因金著考指喉 自捕聽誣授李天柱運余糧米. 捕校來拿天柱 則朴天衡出意見 並申好囊頭上送 其禍心斷可知矣. 及其與光福面質 節節歸虛白脫而歸. 不意絕島有此奇特人物 今當馬頭之辭 不勝悵然. 書此一律 (*變의 오자로 보인다.)」, 250~251면, 506~507쪽.

65) 趙源煥 編著, 『楊洲趙氏史料選集』, 保景文化史, 1994, 890쪽.

66) 『書啓輯錄』, 奎 15083.

어사 朴天衡은 내가 결코 편지로 연락도 안하고 식량 운반을 해오지 않을 리가 없다고 여기고, 더구나 감사 박우원의 지시를 받고 반드시 나에게 큰 죄로 올라가미를 씌워 조처하려고 했지만, 끝내 단서를 얻지 못한 즉, 바로 서울상인 이천주는 신호와는 서로 친한데 상품을 쌓아 놓은 것에 대해 전가하였다.

대략 신호는 즉 나의 보수 주인이다. 천주와 신호에게 여러 차례 형을 가하고 신문을 했지만 사실이 없자 판관 이형묵으로 하여금 천주의 첩과 신호의 처를 잡아다가 9차례나 주리를 틀어도 불복하니 또한 스스로 조사하여 괴롭혔다.

게다가 나에게 우연히 하나의 문장이 있었는데 그 중에 「歲丁酉秋 余罹誣逮獄」(정유년 가을 나는 무고를 입고 체포되어 옥에 갇혔다), 「蒙聖上恩 生出圓扉」(성상의 은혜를 입고 살아서 감옥 문을 나섰다)의 두 셋의 문구가 있었다. 어사는 “「罹誣」 두 글자의 뜻에 가리키는 바가 있는가”고 문기에 적(賊) 길(吉: 정조시해사건에 연루된 洪相吉 지칭)에게 무고 입을 것을 원용하여 대답하고, 또한 「聖上」 이하 8자를 비취서 증거로 삼으라고 공술하였다.

그래도 제멋대로 형을 가하고 하옥시키므로 시편 중에 운운한 것이다.⁶⁷⁾

정현은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을 때 심한 고문을 받았으며, 그의 보수 주인 신호의 부인도 또한 주리를 틀리는 등의 혹형을 받았다. 물론 사건에 관련되었다는 누명은 신호와 이광복을 대질시켰을 때 근거 없는 무고로 밝혀졌으며, 이에 따라 정현도 석방이 되었다. 이렇듯 비단 보수 주인인 신호 뿐 만 아니라 신호의 아내까지도 혹형을 받으면서까지 정현을 지키려 했음을 알 수 있다. 그후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정현은 제주에서 정의로 이배되게 된다.

정현은 이 시에서 자신을 천리를 떠도는 부평초에 비유하고 있다. 부평초 같은 인생이 3년이나 정착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신호의 정에 힘입어서이다. 이제 임금의 은혜로 죽지 않고 다른 좋은 곳으로 옮겨 간다고 하고 있다. 귀양객에게 있어 정의현이 제주목보다 더 좋은 곳일 리 없다.

정의는 제주목에 속한 읍이다. ‘박천형의 계’에서 「제주성은 배 닿는 곳과 10리 미만의 거리에 있으며 더구나 여기는 육지 상인들이 도회를 이루는 곳이므로 죄인과 같이 서울과 인연이 있는 자는 반드시 편지를 통하러 하거나 식량을 운

67) 위의 책, 192~193면, 403쪽. 御使朴天衡 以余決無不通書不運糧之理 且承監司朴祐源之指 必欲鉤得 而置余大罪 終莫得端倪 則乃以京商李天柱女申好 柑善誘之積置財貨 蓋申好即余保授主人也 天柱申好 屢加刑訊無實 則令判官李亨默捉致天柱之妾申好之妾 九次周牢不服 又親自按查而極矣 且余偶有一文字 其中有歲丁酉秋 余罹誣逮獄 蒙聖上恩 生出圓扉 數三句語 御使 以罹誣二字意 有所指問之 故以被賊吉誣援對之 且以蒙聖上以下八字 昭然憑據而納供 則又肆然加刑下獄 篇中云云

반하려 않을 수가 없으니 두 현 즉 정의나 대정으로 이해하는 게 좋겠다」⁶⁸⁾고 하였다.

이렇게 본다면 정의현으로의 이배는 유배객 정헌에게 더 혹독한 형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정헌의 마음은 평안하지 못했던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보수 주인 신호와의 이별은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은 정헌으로 하여금 더 없는 슬픔이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만큼 보수주인 신호와의 정이 깊었다는 증거이다.

관아에서는 정헌을 신호의 집에 계속 머무르게 두지 않고 金潤才의 집을 임시 거처로 정해 일백 일을 머물게 하고 일백일이 지난 후 정의현으로 거소를 옮기게 하였다.⁶⁹⁾ 이때도 물론이거니와 이후에도 보수주인 金潤才 역시 정헌에게 정성을 다하였음을 다음 시편은 말해 주고 있다.

| | |
|------------------------|-------------------------|
| 命薄如今此海濱 | 명이 박해 지금 이 바닷가에 |
| 愁中日月夢中身 | 근심 속 세월 꿈속을 헤맨 몸 |
| 形骸可奈瘴炎毒 | 몸골은 어떻게 장기와 무더운 독기 견뎠는가 |
| 生死惟須天地仁 | 죽고 사는 것은 모름지기 천지의 인자함이라 |
| 粥飯無營長閉戶 | 죽도 못 마련하여 오래 문 닫았다가 |
| 杯觴有賴始知春 | 술잔에 의지하니 비로소 봄인 줄 아네 |
| 可憐萬里新遷客 | 가련하다 만 리에 새로 온 유배객 |
| 多謝經年舊主人 ⁷⁰⁾ | 해를 넘겨 옛 주인에게 감사하네 |

호시탐탐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관리들과는 달리 유배지의 주민으로부터는 오히려 보호를 받는 정헌, 멀리 옛 보수 주인 김윤재로부터 받은 한 병의 술은 정헌으로 하여금 다시 붓을 들어 詩 한 편을 쓰게 하였다. 죽도 못 얻어먹는 처지에 오랜만에 넘긴 술 한 잔으로 비로소 봄인 줄 느낀다고 하고 있다. 이것은

68) 위의 책, 249면, 504쪽. 聞朝家以余移配旌義縣 旌乃濟州之屬邑. 而事因御史朴天衡啓也. 天衡之啓畧曰 濟州州城去般所 不滿十里之地也 且是陸商都會之處 則如罪人某也之攀緣京洛者 必不無書札之通糧米之運 移配兩縣可也.

이 중 「」안에 있는 것은 『書啓輯錄』의 것을 정리한 것이다.

69) 위의 책, 250면, 505쪽. 再生後 自官更定保授於吏人金潤才在家 纔禍百餘日 又有移配之命 不勝悵然 書此以示

70) 「舊主人金潤才 寄一壺酒 其意可尙 飲後走草감독」, 270면, 558쪽.

정헌이 단지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계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옛 주인이 전해준 그 마음 덕분에 한 겨울처럼 얼어붙었던 정헌의 마음도 봄처럼 온기가 돈다는 것이리라. 얼마나 고마웠으면 마지막 절구에 고맙다는 말 앞에 ‘많이’ 고맙다는 말을 했겠는가. 이렇게 정헌을 살뜰히 보살펴 준 한 사람을 더 살피본다.

| | |
|-------|-----------------------|
| 惟爾光南族 | 그대는 남쪽에서 빛나는 별족 |
| 胡爲蠻鄉落 | 어찌하여 남쪽 변방에 떨어졌는가 |
| 十世雖居陋 | 10세를 누추하게 살았으면서 |
| 儒業尙有託 | 아직도 유업에 의탁하네 그러 |
| | |
| 年年貢士列 | 해마다 공사의 대열에서 |
| 聲價一何特 | 좋은 평판 어찌 한번 뿐이라만 |
| 解額亦關數 | 향시 급제 또한 운수 소관인지 |
| 主司昧珠璣 | 시험관은 진주와 자갈 분간 못했네 |
| | |
| 我乃老斯文 | 나는 바로 늙은 선비로 |
| 流竄此海曲 | 이 바다 구석에 유배됐네 |
| 太守設法禁 | 태수가 법으로 금하니 |
| 時人喜拊撫 | 사람들 기꺼이 감시하고 |
| 四隣日相守 | 사방 이웃 날마다 서로 지키며 |
| 防夫來如織 | 방부는 베틀 북처럼 왔다 갔다 했네 |
| 身苦在鍼氈 | 몸은 가시방석에 앉은 듯 하고 |
| 魂如遊鬼國 | 혼은 저승에 떠도는 듯 하여 |
| 乃於虎牢中 | 바로 호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때 |
| 偶與爾相識 | 우연히 그대를 알게 되었네 |
| 耳目皆可怕 | 사람들 이목이 두려워 |
| 談討期夜席 | 이야기 나누려 밤 되기를 기다렸네 |
| 干今四五年 | 이리 된지 지금까지 4, 5년 |

| | |
|----------------------|------------------------|
| 情誼親骨肉 | 정분은 골육 같이 친하네 |
| | |
| 我愆日以泣 | 나는 허물 때문에 날마다 우는데 |
| 爾又賢妻哭 | 그대 또한 현처 때문 통곡하네 |
| 蒼黃一分手 | 다급히 한 번 헤어진 후 |
| 日月奄幾朔 | 세월이 문득 몇 달이라 |
| 壤地非參商 | 땅 위의 삼성과 상성 같이 만나지 못하고 |
| 消息如涯角 | 소식이 물가 끝 같이 아득하네 |
| 寂寞木石居 | 적막하게 목석처럼 사니 |
| 愁懷無人釋 ⁷¹⁾ | 수심 풀어줄 사람 없네 |
| | |

제주 사람 중에 정헌이 가깝게 지내며 의지했던 사람 중에 金聖麟이라는 사람이 있다. 金聖麟은 정의현 서쪽 사람이었다. 정헌이 정의현에서 유배생활을 할 때 가장 가근하게 지낸 사람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는 제주의 선비다. 태수가 사람들을 시켜 감시하고 억압하여 “몸은 가시방석에 앉은 듯 하고 혼은 저승에 떠도는 듯 하여 바로 호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때” 우연히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가 향시에 급제하지 못하면 자기의 일처럼 안타까워하고 태수의 감시가 심하여 ‘사람들의 이목이 두려우면 이야기를 나누기 위하여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 고 할 정도로 정헌과는 지근한 사이였던 것 같다.

이렇게 친분을 쌓은 지 4~5년 정분은 마치 친 골육과 같았다. 그가 처상을 만나 집으로 돌아간 지 몇 달이 되었다. 그런데도 정헌은 이를 한탄하며 슬퍼함을 이길 수 없어 이렇게 긴 시를 지은 것이다. “땅 위의 삼성과 상성 같이 만나지 못하고 소식이 물가 끝 같이 아득하네” 라고 탄식을 한다. 그가 없는 귀양살이는 ‘적막하게 목석처럼 사는 것이나 진배없고 수심을 풀어줄 사람이 없는 적막한 삶이다’라고 하는 걸 보면 정헌이 그를 얼마나 간절히 그리워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 하겠다.

71) 「金生聖麟卽旌義西面人也 防夫如織之時 有時相訪 遭其妻喪 還其家已數朔 不勝招悵 賦此以記」, 274~276면, 569~570쪽.

이러한 가운데 정헌의 고난은 1781년(정조 5년) 3월 金耆耆가 제주목사로 도임하면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 金耆耆는 辛任土禍 때 老論 四大臣을 彈劾하다가 영조 즉위 후 처형된 金一鏡의 심복이었던 사람이었다.⁷²⁾ 그는 부임하자마자 정헌을 죽일 계책을 꾸미게 되는데 그의 마수에 걸린 사람은 다름 아닌 홍랑, 즉 홍윤애였다. 홍랑은 정헌이 제주에서 만난 여인이다. 그녀는 현 제주시 유수암리 소재의 무덤에 세워진 묘비에 의하면 ‘향리 홍처훈의 딸이다. 정조 丁酉(정조 1년, 1777년)에 정헌이 탐라에 안치되고 얼마 후, 그녀는 정헌의 처소를 출입하기 시작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辛丑(정조 5년, 1781)에 김시구가 홍윤애를 미끼로 정헌에게 죄를 씌워 죽이려 하였다. 그녀는 김시구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고 고문을 받다가 “공의 삶은 나의 죽음에 있습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결국 불복하고 목을 매어 죽었다.’⁷³⁾

홍랑의 장사가 치러지던 날 정헌은 피눈물 나는 시를 한 수 지었다.

| | |
|------------------------|--------------------------|
| 橘柚城南三尺墳 | 귤나무 유자나무 우거진 성 남쪽에 작은 무덤 |
| 芳魂千載至冤存 | 아름다운 혼의 지극한 원한 남아 있다 |
| 椒漿桂酒誰能奠 | 초장에 계주를 누가 드릴까 |
| 一曲悲歌自淚痕 ⁷⁴⁾ | 한 곡조 슬픈 노래에 눈물 흐른다 |

자기 대신 목숨을 내놓고 죽어간 홍윤애를 감옥 안에서 보내야만 했던 정헌의 피맺힌 절규가 시 곳곳에 흐르고 있다. 어쩌면 정헌은 이 시점에서 새로운 각오를 다졌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리하여 자기 때문에 죽음을 선택한 홍윤애를 위해 반드시 살아서 제주 땅을 다시 찾아와 위의 시구처럼 ‘아름다운 혼의 지극한 원한’을 풀어 주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했던 것은 아닐까.

| | |
|---------|------------------------|
| 瘞玉埋香奄幾年 | 문헌 옥, 숨은 향기 문득 몇 년이던가 |
| 誰將爾怨訴蒼旻 | 누가 그대의 억울함 푸른 하늘에 호소하리 |

72) 소재영, 『조선조 문학의 탐구』, 아세아문화사, 1997, 245~246쪽.

73) 위의 책, 310면, 636쪽. 洪義女鄉吏處勳女 正宗丁酉 余以罪置耽羅 義女時出入余謫 辛丑壬寅 欲搆余以義女餌殺 機墮突 血肉狼藉 義女曰 公之生在我一死 既不服 又雉懸而殉.

74) 「六月二日 曉聞薤露聲 問 是洪娘發鞠也 由我而死 不覺可憐慘但 起書一絶」, 184~185면, 387쪽.

| | |
|------------------------|----------------------------|
| 黃泉路邃歸何賴 | 황천길 아득한데 누굴 믿고 돌아갔나 |
| 碧血臟深死赤緣 | 정의의 피 깊이 감추고 죽음 또한 까닭이 있었네 |
| 千古芳名蘅杜烈 | 천고에 아름다운 이름들 형두꽃처럼 빛나며 |
| 一門雙節弟兄賢 | 한 집안의 두 절개, 형제가 현숙하여라 |
| 鳥頭雙闕今難作 | 젊은 나이의 두 무덤, 이제는 일으킬 길 없고 |
| 靑草應生馬鬣前 ⁷⁵⁾ | 푸른 풀만이 말갈기 앞에 돌아나는구나. |

해배 후 정헌은 홍문관교리로 있다가 순조 11년(1811) 6월 제주목사 겸 전라도 방어사로 도임하게 되었다. 그는 제주에 도임하자 곧바로 홍량의 무덤을 찾았고 손수 이 시를 지어 碑를 세우기에 이르게 된 것이다.⁷⁶⁾ 마치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한편, 1788년 8월 李顯大가 다시 정헌에게 곧 서울로 올라간다면 집에다 안부를 전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정헌은 이현대를 통하여 집에 가는 편지를 부칠 수 없었다. 일찍이 그의 행적이 너무나 가슴에 맺혔고 1781년(정조 5, 辛丑) 옥사를 만들어내 골탕을 먹인 자였기 때문이다. 난처해하면서도 한 장의 서찰을 써서 주었다. 서찰 중에는 “어미와 아들, 형과 아우가 살고 죽음을 알지 못한 지가 이미 8년이다. 비록 한 하늘 아래 있지만 곧 지하 가운데 떨어져 있게 될 것이다” 하는 말도 있었다. 그리고 “식량과 의복은 섬에서 금지하는 것이고 도토리 를 먹고 콩잎을 먹는 것이 나의 분수인즉, 짚신을 삼고 탕건을 짜면서 목숨을 이어 갈 테니 들여보내지 말라. 다만 살고 죽은 소식을 통하는 게 나의 소망이다” 운운하는 말도 있다. 여기까지는 이현대가 정헌에게 호의를 베푸는 듯하였다.

그러나 이현대는 서울에 가면서 정헌의 편지만 가지고 간 것은 아니었다. 그는 大靜에 위리안치 당한 金宇鎭의 편지를 그 가족에게 전해주면서 심부름 값으로 3백 냥을 받기로 되어 있었다. 이렇게 유배인의 편지를 식구들에게 전달하려던 계획은 당시의 재상 李性源에게 알려졌고 이성원은 임금과 대좌하여 그의 치죄를 청하였다. 이 사건은 결국 정헌에게까지 불뚱이 튀었다. 포청에서 이현대에 게서 정헌과 다른 나머지 죄인의 편지도 찾아낸 것이다. 그러나 정조는 “이것은

75) 「題洪娘墓」, 310면, 635쪽.

76) 위의 책, 636쪽.

그의 어머니의 살고 죽은 것을 묻은 것뿐이다. 또 옷과 식량을 보내지 말라고 청하고 있다. 宇鎭과는 서로 상반되고 효자의 인정이라 할 만하고 어찌 그렇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하면서도 “그러나 이미 나라가 금지한 것을 범했으니 한결같이 거행하라.”고 명하였다. 전라감사 徐龍輔와 여러 保授도 체포하니 조정철의 보수인 金應貴도 역시 붙잡혀 가게 되었다. 다행히 형을 받지 않고 무죄로 방면되어 돌아오게 된다.77)

| | |
|------------|-------------------------|
| 現在世何多業冤 | 세상에 억울한 업보 어찌 그리 많은지 |
| 見聞種種使驚魂 | 보고 듣는 가지가지 혼을 놀라게 하네 |
| 指無謂有憎茲口 | 따져보면 아무 것도 없는데도 미워하여 |
| 助浪推波痛彼言 | 파도가 치듯 그 말에 아팠네 |
| 欲察通書元沒跡 | 편지 왕래 살펴도 원래 자취 없었고 |
| 縱疑謀食豈其痕 | 식량 구한다 의심했으나 어찌 흔적 있었으리 |
| 孤臣賴得明王在 | 외로운 신하 밝으신 임금의 신뢰 얻었거늘 |
| 奈爾耽羅官吏昏78) | 어찌 저 탐라 관리들 어두운가. |

정헌은 모든 것이 업보에서 오는 것이라고 하면서도 그 억울함이 혼을 놀라게 한다고 토로하고 있다. 아무런 죄 없이 누명을 쓴 자신이 임금으로부터는 신뢰를 얻은 몸인데 거꾸로 탐라의 관리들은 자신을 죄인 중의 죄인으로 취급하며 함부로 대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자꾸 자신을 사지로 내몰려고 하는 모습에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 무렵 정헌은 무죄로 방면되어 돌아온 보수주인 金應貴를 위해 절구 한

77) 위의 책, 307~308면, 628쪽. 八月李顯大 謂將上洛請往吾家以通安否. 顯大會以不付書. 於渠行大慍做出辛丑獄事者也. 事甚難處 書給一張札曰 母子兄弟不知存歿者 今已八年雖在一天之下 便隔九地之中. 此人願書茲付數 字其意可感.

然糧衣是烏禁也 橡茹藿歡是吾之分 則捆履織也可以延命切勿入送 只通生死是所望也云云. 後聞顯大又受大靜菴棘罪人金字鎭書 通其族金寬鎭 以三百兩 報顯大之債. 顯大尋其家而傳其書 則寬鎭已移. 新家主開見而還給 指示金家寬鎭往見. 時相李性源說到 則性源請對以告 正廟曰 渠有八十老父欲知安否 人子情理無怪之事 何必爲罪. 性源曰書中無一言問死生 只報債事矣, 上取覽曰 極罪 命執顯大付捕廳 行關完營行查 當該地方官並羅職, 及自捕廳探其囊中 又得余札及他餘罪人書. 性源又請對曰 貞詰亦有書矣. 上取覽曰 此則問其母存歿而已 又請勿送衣糧 與宇鎭相反 可謂孝子 人情安得不爾然 既犯邦禁一體舉行. 監司徐龍輔拿諸保授 吾之主人金應貴亦捉去矣. 不受刑白放而還.

78) 「濟州吏李顯大 卽辛丑作孽之一也. 今又仇視我. 而方納賂要寵於牧使李文嶽 出沒探罪人動靜云 不勝可怕書此寓懷」, 299~300면, 614쪽.

수를 짓게 된다.

| | |
|------------------------|------------------------|
| 天時世故自頻繁 | 천시와 세상 변고 빈번하여 |
| 雨露風霜又一番 | 이슬과 풍상이 또 한번 내리네 |
| 罪大孤臣猶不死 | 죄 많은 외로운 신하 오히려 죽지 않으니 |
| 深恩至澤感吾君 ⁷⁹⁾ | 깊은 은혜 지극한 은택 임금님께 감읍하네 |

이 시에서 정헌은 깊은 절망 가운데에서도 희망을 보는 듯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헌은 보수주인 金應貴가 아무런 변고 없이 무사히 살아 돌아왔음에 기뻐하고 있음도 엿볼 수 있다. 이 대목에서 다시 한 번 정헌은 이 고초 많은 유배 생활에서 정헌 자신을 돕는 사람들이 일부 제주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죄를 물으려면 얼마든지 물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끝까지 정헌의 목숨을 지켜준 正祖에게 정헌은 한없는 고마운 마음을 표하고 있다. 이것은 단지 正祖가 정헌의 목숨을 살려 주었고 또한 지금껏 그 목숨을 지탱하게 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결백함을 正祖가 알아주었다는 그 사실이 정헌으로 하여금 더 할 수 없는 은혜였음을 감읍하고 있는 것이다. 이 시에서 정헌은 더 이상 시를 짓지 않겠다는 절필을 선언하기에 이르르게 된다.

그러나 절필은 나중의 일이고, 이 시기에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정헌이 정의현로 이배되어 가는 행로를 따라 지은 시들이다. 정의현로 이배되어 가는 길에 쓴 시들 중 「臨發感書」는 출발에 임하여 느낀 감회를 쓴 시편이다. 그리고 정의현로 가는 노정에서 총 18수의 시를 쓰게 되었는데 그 중 한 수를 여기에 소개한다.

| | |
|-------|-----------------|
| 千年橋林院 | 천년 굴림서원에서 |
| 俎豆五先生 | 다섯 선생을 제사하네 |
| 世運關盛衰 | 세상의 운이 성쇠와 관련되니 |
| 儒風占晦明 | 유풍의 어둠과 밝음을 점치네 |

79) 「保授主人金應貴不受一杖 白放以還 遂書一絕 更不作詩」, 309~310면, 634쪽.

| | |
|----------------------|---------------------|
| 徘徊惻古井 | 배회하며 옛 우물을 측은히 여기다가 |
| 悵悵出古城 | 쓸쓸히 고성을 나선다 |
| 祖述群賢願 | 여러 선비를 근본삼기 바라니 |
| 誰如此客誠 ⁸⁰⁾ | 누가 이 나그네 정성과 같을까 |

이 시의 제목은 좀 길다. 해석을 해보면 「관아에서 몹시 길을 재촉하며 압송하여 밤도 없이 달렸다. 종 친 후 문에 머무는데 급박하게 재촉을 하여 걸어서 소민문을 나와 관서정 가에 서서 굴림서원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바 있어 율시 한수를 쓰다」 정도로 해석되는데 이렇게 해석해놓고 보면 정헌의 제주 유배는 제주 읍에서 조금은 떨어진 곳이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정헌은 이 유배지에서 출발하여 제주 목에 와서 조사를 받고 (동문을 나서) 유배지를 정의로 옮겼다. 유학자답게 정헌은 유배지를 옮겨가는 벌을 수행하는 중에도 본분을 잃지 않고 충암 감정을 생각한다.

이렇듯 정의현으로 가는 길에 지은 시를 통해서 우리는 정헌의 유배 코스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이를 살펴보면 제주성 동문을 출발하여 果園峴(고닛모루), 巨里(거루 : 화북2동)를 지나 峰蓋嶽(봉아름)에서 일박하고, 다음날 細隱刷 (가는 새 : 동회천), 唐南松(와홀 남쪽 지역), 怪坪(곶드르 : 와홀 남쪽), 臥乎山(눈피 : 조천읍 臥山), 松堂 秀峰(백약이 오름: 성읍리), 弓山(활매), 望德峙(독버르니 : 성읍리)를 거쳐 정의현에 도착하였다. 이 루트는 유배객 정헌만이 갔던 길은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 그 당시 제주에서 정의로 갈 때는 보통 이 길을 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무렵 정헌의 시 세계에는 중요한 한 가지 흐름이 발견된다. 그것은 제주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라고 할 수 있다. 정의현으로의 이배가 결정이 되고 정의현로 가는 도중부터 주변에서 보고 들은 것들을 연작시로 풀어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정헌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의식의 변화가 정헌의 내부에서 싹 트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물론 이전에도 정헌은 상당한 양의 연작시들을 남기고 있다. 그중에서 5수 이상으로 이루어진 것만 보면 다음과 같다.

80) 「自官使之倍道押送 罔夜疾馳 鐘後留門 迫逐步出蘇民門 立判書井畔 望橋林書院 感書一律」, 252면, 509쪽.

「官禁太酷 家信久斷 頗覺紆鬱 以唐詩嶺外音書斷 分韻書古體」 5수, 원본119~122면, 번역본 253쪽.

「次杜律秋興韻」 8수, 원본 127~130면, 번역본 274쪽.

「效玉連環體 書謫況」 8수, 원본 170~172면, 번역본 356쪽.

「以八事書揭壁上自警 仍於題下 各書一律」 8수, 원본 179~182면, 번역본 378쪽)⁸¹⁾.

그런데 이들 시에서 공통되는 것은 대부분이 ‘신세한탄’이라는 것이다. 한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 | |
|----------------------|--------------------|
| 自我謫此島 | 나 이 섬에 유배온 뒤로 |
| 于今幾炎冷 | 이제까지 추위와 더위 몇 번이던가 |
| 望中但層濤 | 바라보면 다만 밀려오는 파도뿐이요 |
| 天外更重嶺 | 하늘 밖 다시 거듭되는 산들이라 |
| 長安二千里 | 장안은 이천 리요 |
| 消息阻海艫 | 소식은 바다에 막혔네 |
| 戀君憂懇懇 | 임금님 그리워하는 마음 간절하고 |
| 思親心耿耿 | 어버이 그리워 마음 불안하네 |
| 依枕眠不成 | 베개에 기대어도 잠 못 이루고 |
| 孤坐度夜永 ⁸²⁾ | 외로이 앉아 긴 밤 지새네 |

첫 연에서 시인은 시간적인 고립감을 유배온 뒤 시간이 얼마나 지나갔는지 묻는다. 그리고 이어서 공간적 고립감을 말한다. 바라보면 파도와 산으로 가로막혀 멀리 혼자 있다고. 그래서 장안은 이 천리나 떨어져 있고 소식은 바다에 막혀 전해지지 못한다. 그래서 임금을 그리워하고 부모를 그리워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고도에 온 유배객이 느끼는 고립감, 목숨을 살려주신 임금에 대한 감사와 부모 생각이 절절하게 나타나 있다. 이와 같이 임금과 부모를 그리워

81) 이밖에도 「悲身世」 4수 (313쪽)는 4수에 지나지 않지만 이 시 다음에 「又得悲字」라는 다른 이름의 시를 남겨놓고 있다. (316쪽) 이 시도 앞의 「비신세」와 같이 7언율시라는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앞 시와 연결지어 보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82) 「官禁太酷 家信久斷 頗覺紆鬱 以唐詩嶺外音書斷 分韻書古體」, 120면, 253쪽.

하며 외로워하는 신세한탄은 『처감록』에서 주류를 이루는 정서라고 할 정도로 많다. 그리고 정의에 이배된 뒤에도 이 같은 정조의 시들이 지어지기도 하였다.⁸³⁾

2. 정의현 유배기

정헌은 정의현에 도착하고 나서 ‘정의에 도착해 보름동안 항상 흐리고 햇빛 비치는 날이 적어 장기가 이미 생겼기 때문에 사람이 병나게 되어 율시 한 수를 적었다⁸⁴⁾’ 라는 제목으로 시를 지었다. 이것으로 볼 때 정의에서의 그의 삶은 제 주목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음을 직감 할 수 있다.

| | |
|----------------------|---------------------|
| 光陰窮二月 | 세월은 곤궁한 2월 |
| 烟火冷孤城 | 밥 짓는 연기 차가운 외로운 성 |
| 海有三時瘴 | 바다엔 삼시 음습하고 |
| 天無一日晴 | 하늘은 하루도 맑지 않네 |
| 筋骸已欲病 | 살과 뼈 이미 병들려 하고 |
| 鬚髮也應更 | 머리는 늙은이 되었네 |
| 舊學今猶賴 | 옛날에 배운 것 이제야 믿으리니 |
| 隨緣送此生 ⁸⁵⁾ | 인연 따라 이곳에 살라 보냈음을…… |

정희는 제주의 다른 지역보다 습도가 높고 곰팡이와 각종 벌레가 들끓었다. 또한 식수로 쓸 만한 물이 마땅치 않아 마을 주민들은 물론이거니와 정헌에게도 가장 견디기 어려운 당면 과제였던 것 같다. 똑같은 제주지만 더 상황이 나빠진

83) 「除夕」 9수 (222~226면, 471쪽), 「用前韻賦冤恨」 5수 (294~296면, 605쪽), 「島中聞從兄注書公憲詰詰書此」 10수 (302~305면, 620쪽)

84) 「到旌義 一望恒陰少日 瘴氣已生故也 今人欲病 書此一律」, 260면, 531쪽.

85) 「到旌義 一望恒陰少日 瘴氣已生故也 今人欲病 書此一律」, 260면, 531쪽.

이 곳 정의현으로 이배된 이후 정헌의 삶에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그의 시문들을 통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1) 제주에 관한 시각의 변화

정의로 이배되던 무렵에도 정헌은 연작시를 썼다. 앞에서 보았듯이 이것은 이 무렵만의 현상은 물론 아니다. 그러나 이전의 연작시가 신세 한탄이 주를 이루었던 것에 비하여 이 시기의 작품들 중에는 제주의 지리와 풍속을 읊은 작품들이 등장한다. 물론 이것은 유배기간이 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주위에 대한 관심의 발로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이전과 다른 면모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무렵의 연작시 중에서 제주의 풍물 풍속을 노래한 시편은 「橘柚品題」 15수(원본 212~217면, 번역본 452쪽)와 「余五年海上 畏約不觀 亭樓之勝 而久居之故 耳聞無異目擊 暇日漫書」 10수(원본 243~248면, 번역본 490쪽) 그리고 「耽羅雜詠」 33수(원본 277~292면, 번역본 576쪽)가 그것이다.

이 시들은 문학적 성취도도 물론 값지지만 한 수 한 수가 당시 제주를 알 수 있는 귀중한 연구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橘柚品題」는 橘柚類를 품제한 것이다. 이 시에 따르면 당시 제주의 귤유는 乳柑橘, 別橘, 大橘, 唐金橘, 洞庭橘, 小橘, 唐柚子, 柑子, 金橘, 柚子, 山橘, 靑橘, 枳橘, 橙子橘, 石金橘의 15종이 있었다.⁸⁶⁾ 이는 김정이가 「제주풍토록」에서 말한 금귤, 유감귤, 동정귤, 청귤, 산귤, 감자, 유자, 당유자 왜귤의 9종에 비하여 훨씬 세분된 것이다.

정헌은 종류를 세분한 것 말고도 각 품종마다 매우 자세한 설명을 덧붙여놓고 있다. 이들 중에는 오늘날 감귤 연구에도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乳柑橘 ~八月運始貢⁸⁷⁾

別橘 樹之生 在三十年之內 故島中只有三四株而已 是以不爲進貢云⁸⁸⁾

86) 소재영, 『조선조 문학의 탐구』, 아세아문화사, 1997, 251쪽.

87) 위의 책, 212면, 456쪽. 유감귤~8월부터 운반하여 공납을 하기 시작한다.

88) 위의 책, 213면, 457쪽. 나무 수명이 30년이 안 되어 섬에 서너 그루 밖에 없다. 그래서 진공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大橘 耽羅舊無此橘 肅宗朝以赴燕使所齋來者 入送島種云89)

柑子 柑運至京之日 每有頒賜諸近臣之家)90)

柚子 如湖嶺間所產 九月進貢91)

山橘 此橘甚多 故進貢諸珍果 若不結實 未充元數 則以此代封92)

乳別大小唐金洞庭六橘并謂之珍果93)

青橘 乾取其皮爲青皮94)

橙子橘 取乾其皮 則爲陳皮95)

이 시편에는 이러한 실용적인 자료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정헌은 꿀을 품제하면서 여인에 비유하기도 한다.

| | |
|----------|---------------------|
| 素英元窈窕 | 하얀 꽃 본디 암전하고 |
| 貞質更幽閑 | 곧은 자질은 더욱 그윽하고 한가하네 |
| 一見心如醉 | 한번 보면 마음이 취하는 듯하니 |
| 孤懷每自寬96) | 외로운 마음이 매번 너그러워지네 |

이 시는 당금꿀을 품제한 것이다. 하얀 꽃을 고귀한 자태를 가진 여인에 비유하고 있는데, 시인 스스로 “비유하자면 여사가 암전하고 한가하며 곧고 조용한 자태를 지니고 있다.”97)고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꿀유품제」 ‘其五’는 매우 육감적인 설명을 하는 등 시인의 감성을 담아 꿀유의 품제를 하고 있다.98)

정헌이 이러한 감귤에 대한 관심은 훗날 그가 제주목사로 부임했을 때(1811)

89) 위의 책, 214면, 457~458쪽. 탐라에는 옛날에 이 꿀이 없었는데 숙종 대 연경에 갔던 사신이 품고 온 것을 섬 안에 보내 심었다고 한다.

90) 위의 책, 216면, 460쪽. 감자가 운반되어 서울에 도착하는 날이면 늘 가까운 신하의 집에 나누어 주었다.

91) 위의 책, 217면, 461쪽. 영호 지방 같은 데에서도 산출되며 9월에 진공한다.

92) 위의 책, 218면, 461쪽. 이 꿀이 매우 많아서 진상할 때 만약 진과가 열매가 안 달려 원래 수량을 채우지 못하면 이것으로 대신 봉진한다.

93) 위의 책, 215면, 459쪽. 유감, 벌꿀, 대꿀, 소꿀, 당금꿀, 동정꿀의 여섯 가지 꿀은 진과라 한다.

94) 위의 책, 218면, 461쪽. 그 껍질을 말려 청피를 만든다.

95) 위의 책, 219면, 462쪽. 그 껍질을 말려서 진피를 만든다.

96) 위의 책, 214면, 458쪽.

97) 위와 같은 곳. 比如女士 有幽閑貞靜之態.

98) 위의 책, 214~215면, 458쪽. 離離三寸實/猶帶洞庭名/何似瑤臺女/慙慙月下迎.

12개의 과원을 설치하여 감귤재배를 권장했던 일⁹⁹⁾은 이 시기의 감귤에 대한 남다른 관심 때문이 아니었나 싶다.

다음으로 주목할 것은 「余五年海上 畏約不觀亭樓之勝 而久居之故 耳聞無異 目擊 暇日漫書」 10수이다. 정헌은 제주에 귀양 온 지 5년이나 되었으면서도 누정의 구경을 나가지 못하였다. 그래도 오래 지내다 보니까 들은 것이 본 것과 다름이 없어서 제주의 누정을 시로 읊었다는 것이다. 이 시에서 읊은 것은 한라산과 望京樓, 觀德亭, 運籌堂, 南水閣, 北水閣, 判書井, 尤庵先生謫廬遺墟碑, 嘉樂泉, 淸風臺이다.¹⁰⁰⁾ 이렇게 보면 이곳 모두가 누정이나 대각만은 아님을 금방 알 수 있다. 그중에 한 수만을 보기로 한다.

| | |
|-----------------------|---------------------|
| 高閣通南北 | 높은 다락은 남북으로 통하고 |
| 流川自古今 | 흐르는 내는 예부터 오늘까지 |
| 杯觴臨鱷海 | 술잔을 들고 악어 바다에 임하고 |
| 几案對仙峯 | 책상은 신선의 산을 대하였네 |
| 異蹟徵毛洞 | 기이한 자취는 탁동에 조짐을 보였고 |
| 餘香挹橘林 | 남은 향기는 귤림에 읊하네 |
| 境幽山鬼泣 | 지경이 그윽하여 산 귀신이 흐느끼고 |
| 風雨晝陰陰 ¹⁰¹⁾ | 비바람 치면 낮에도 어둠침침하네 |

이 시는 남수각을 두고 지은 시인데 “성 남쪽에 있으니 곧 남쪽 수구다”¹⁰²⁾라고 설명하고 놓고 있다. 그리고 시의 해독을 돕기 위하여 “탁동의 삼성혈은 남수각 오 리 밖에 있다”고 하고 이 설명 뒤에 “귤림서원은 누각의 서쪽 지척의 거리에 있다. 그래서 5, 6구에서 언급하였다”고 친절하게 설명하였다.¹⁰³⁾ 이러한 설명은 지금은 없어져버린 사적의 위치를 확인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 할 것이다.

99) 趙源煥 編著, 『楊洲趙氏史料選集』, 保景文化史, 1994, 890쪽.

100) 소재영, 『조선조 문학의 탐구- 「정헌 조정철과 홍량진」』, 아세아문화사, 1997, 251쪽.

101) 「余五年海上 畏約不觀亭樓之勝 而久居之故 耳聞無異 目擊 暇日漫書」 其五, 처감록, 245면, 496쪽.

102) 위와 같은 곳. 在州城南 卽 南水口.

103) 위와 같은 곳. 毛洞三姓血在南水閣外五里 橘林書院在閣西咫尺之地 故五六句及之.

또한 정헌이 이 시기에 쓴 「耽羅雜詠」은 가장 주목받을만한 시편이라 할 수 있다. 제주목에서의 5년간의 유배생활을 마치고 다시 정의현으로 유배장소가 옮겨지면서부터 정헌은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정헌은 그의 시문집 『정헌영해처감록』에 「耽羅雜詠」이라는 별도의 이름을 붙인 연작시를 남겼다. 전체 33수로 이루어진 이 연작시는 제주를 매우 소상하게 소개하고 있다. 이는 정헌이 유배초기 보여 주었던 제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이 어떻게 변모되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점이라 여겨져 별도의 절로 나누어 다루고자 한다.

2) 「耽羅雜詠」의 시각

「탐라잡영」은 정헌의 종조부가 되는 조관빈(趙觀彬, 1691~1757)이 제주에 유배되었을 때 「耽羅雜詠」이라는 제목의 22수를 지은 바 있다. 정헌은 『처감록』에서 趙觀彬의 시에 차운하였다고 밝힌 시를 적잖게 남겼는데 이 「耽羅雜詠」이라는 이름도 여기에서 차용된 것으로 사료된다.

정헌의 「耽羅雜詠」은 그 양에 있어서 회헌의 그것보다 11수가 더 많은 33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雜詠」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회헌과 정헌의 제주유배 기간이다. 회헌의 제주 유배기간은 1731년(영조 7년) 10월에 제주 대정현에 유배되어 이듬해 6월에 석방된 반면, 정헌의 경우에는 1777년 8월 (정조 1년)에 제주에 유배되어 1790년 추자도로 이배되기 이전까지의 13년 동안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 내용면에서 많은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둘째, 회헌의 「雜詠」이 제주를 개괄적으로 본 것이라고 한다면 정헌의 「雜詠」은 실제 제주민들의 고통스러운 삶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정헌의 「雜詠」 중 관리들의 탐학과 폭정에 관한 이야기가 33수의 「雜詠」 중 8수-其二, 其五, 其七, 其八, 其九, 其十, 其二十三, 其三十二-로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이 밖에 其三, 其二十二, 其二十八, 其三十一는 정의현 사람들이 겪는 식수 문제와 많은 제주민들의 목숨을 앗아간 갑신년(1764년 영조40) 흉년을 상기시키고 있다. 또한 관리들은 섬이라는 특수성을 이용해 법을 새로 제정하면서까지 정헌 자신을 감시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음을 「雜詠」- 其二, 其五, 其六, 其七, 其八-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와 반면 회헌

의 「雜詠」은 제주민들의 고통을 담아낸 내용은 한, 두 수에 지나지 않는다. 그 중에서도 특히 관리들의 수탈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점은 눈으로 확인되는 범주에 불과하며 이보다 더 결정적인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회헌의 「雜詠」과 정헌의 「雜詠」은 접근방법의 차이임을 알 수 있다. 먼저 회헌의 「雜詠」을 살펴보자 김윤중이 그의 논문¹⁰⁴⁾에서 회헌의 「耽羅雜詠」을 1) 탐라의 위치와 한라산, 그리고 신화 2) 탐라의 역사와 연군 3) 유배지 환경과 오현사 4) 탐라의 생활과 풍속 5) 탐라의 진상품들 6) 유배와 그 정감 등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이는 단지 회헌의 「雜詠」을 그 내용별로 분류하였다는 데에 의의를 둘 뿐이다. 회헌의 「잡영」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의 「雜詠」은 제주를 보는 시각이 다소 관념적이며 중앙적인 시각으로 출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시각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를 들면 회헌의 「雜詠」其六¹⁰⁵⁾, 其十八¹⁰⁶⁾이다. 이와는 반대로 정헌의 「雜詠」은 其一 첫 편부터 마지막 其三十三까지 현실에 바탕을 두고 매우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내용을 주제별로 나누어 보면 첫째 제주의 지리적 위치, 둘째 제주의 역사와 산업 셋째 제주의 풍속 넷째 관리들의 수탈 다섯째 제주민들의 의, 식, 주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일련의 어떤 흐름을 가지고 이야기 되었다기보다 그때마다 느꼈거나 겪은 일 중심으로 써내려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박동욱이 그의 논문에서¹⁰⁷⁾ ‘조정철의 「耽羅雜詠」은 조관빈의 「耽羅雜詠」의 확장버전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유사점이 적지 않다.’ 라는 견해는 인정할 수가 없다. 정헌의 「雜詠」이 회헌의 「雜詠」으로 부터 적잖은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회헌의 「雜詠」과 정헌의 「雜詠」은 그 접근방법부터가 다르며 내용에 있어서도 판이한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창졸시간, 절해고도 제주에 유배된 정헌은 육지와는 확연히 다른 이질적인 풍속을 낯설어 하였다. 그러나 유배 초기와는 달리 생소하고 이질적으로 여겨졌던 제주의 풍속이 점차 정헌의 시 속에서 새롭게 비쳐지고 있다는 것이다.

104) 김윤중, 「悔軒 趙觀彬의 耽羅雜詠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0) 12쪽.
 105) 『회헌집』, 「탐라잡영」 其六, 太朝以來王化宣 周家禮樂禹山川 大哉遠俗懷綏意 民泣明陵雲漢篇.
 106) 『회헌집』, 「탐라잡영」 其十八, 螺貝瓊珠玳瑁俱 青皮白蠟石鐘乳 奇珍美料稱茲土 物產由來八路無.
 107) 박동욱, 「조정철의 「탐라잡영」 연구」, 東洋漢文學研究 卷32집, 東洋漢文學會, 2011, 273쪽.

| | |
|-------------------------|-----------------------|
| 毛羅自是馬牛島 | 탐라는 본래 말과 소의 섬이라 |
| 民性時時習與同 | 백성의 본성 때때로 풍습과 같아 |
| 豆葉生包飯頓食 | 콩잎 날것에 밥을 싸서 단번에 먹으니 |
| 誰將王化變蠻風 ¹⁰⁸⁾ | 누가 장차 왕의 덕화로 남방풍속 바꿀까 |

예부터 제주는 말과 소의 섬이라고 일컬어 왔다. 1267년(원종 8)몽골과 첫 접촉이 이루어진 이후 얼마 되지 않아 몽골의 직할령이 되어 100여 년간 몽골의 정치적 영향력을 받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 탐라의 국립 목장에 배속되어 말과 소, 쇠고기 등의 방물을 거두어가는 몽골의 제주 경영이 계속 이어졌으며 공민왕대(1352~1374)에 이르러서는 제주사회의 주도권이 ‘하치’라고도 일컬어지던 목호 세력에 의해 장악되게 된다¹⁰⁹⁾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기인해 정헌이 제주를 말과 소의 섬이라 했던 것은 자연스럽다고 할 것이다. 또한 정헌에게 있어 말이나 소처럼 밭에 있는 콩잎을 날로 따서 바로 먹는 그 모습은 밭에서 나는 것들을 별도로 조리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먹는 풍속들을 두고 한 말인 듯하다. 이런 풍속들은 지금도 남아 있으며 비근한 예로 장독대에서 떠온 된장을 찌거나 끓이지 않고 날로 먹는 경우가 그것이다. 이처럼 콩잎을 날로 먹는 풍속도 이 중의 하나이다. 이런 풍속들은 육지에서 온 유배객의 눈에는 상당히 이질적으로 보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유배 초기 정헌은 이러한 풍속을 야만적이라고 까지 하였다. 이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정헌은 이러한 풍속을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정헌이 이 시의 原註에서 ‘섬사람들은 5월에서 7, 8월까지 콩, 팥, 녹두잎 등 날것에 밥을 싸서 단번에 먹으면서 비릿한 맛을 느끼지 못하고 더없는 반찬으로 삼으므로 농가의 밥상에 반드시 이것에 오로지 의지하기 때문에 말한 것이다.’¹¹⁰⁾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정헌이 그토록 부정적으로 바라보았던 제주를 시각을 달리하여 이러한 제주의 모습이 풍속으로 굳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108) 『耽羅雜詠』 其二十, 285면, 591~592쪽.

109) 전경수 외 『탐라사의 재해석』, (제주발전연구원, 2013), 202~203쪽.

110) 『耽羅雜詠』 其二十, 285면, 591~592쪽, 島人自五月至七八月 以大豆小豆菘豆葉 生包飯頓食 莫知腥臊之味 以作無上之饌 農飯所須專靠干此故云.

그런데 박동욱은 그의 논문¹¹¹⁾에서 위의 시를 단지 ‘야만적 풍속’의 범주로 분류하여 다루었을 뿐이지 이 시 속에 흐르는 제주의 풍속에 대한 정헌의 세세한 의식의 흐름을 잡아내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이어 풍속에 대한 「雜詠」 한 편을 더 살펴보기로 한다.

| | |
|-------------------------|----------------------------|
| 耽羅遙在海之中 | 탐라는 멀리 바다 가운데 있어 |
| 男少女多今古同 | 남자는 적고 여자 많기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네 |
| 牧子畦丁菰屋下 | 목자와 농부들도 오막살이 아래서 |
| 一妻一妾自成風 ¹¹²⁾ | 처와 첩 두기가 절로 풍속이 되었네 |

첩 앞에서는 돌부처도 돌아앉는다는 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는 집집마다 첩을 두는 풍속이 있었다고 이시는 말하고 있다. 이는 제주가 섬이라는 특수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야기된 풍속이었음을 알 수 있다.

제주는 섬이다. 섬은 태생적으로 바다와 떼 내야 떼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따라서 섬이라는 환경이 가져다 준 결과물 중의 하나가 남녀의 성비이다. 섬의 남자들은 생업이 주로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는 일에 종사하게 되는데 위험한 바다는 남자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경우가 많았다. 이외에도 전쟁에 차출되거나 종종 노역으로 인해 각종 재난과 사고로 남자의 인구는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정헌이 이 시문의 원주에서 밝힌 그 당시 남자인구는 5만이고 여자 인구는 7만이며 남자와 여자의 인구 차이는 무려 2만 명이나 차이가 났다¹¹³⁾고 하고 있다. 정조실록(1796)¹¹⁴⁾에 보면 그 당시 제주인구가 전체 5만 정도로 조사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정헌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런 수치를 이 시문의 원주에 기록해 두었는지는 모르지만 이는 세심한 고증이 필요하다 하겠다.

육지에 비해 제주는 섬이라는 특수한 환경 때문에 소나 말을 치는 목자나 농부 같은 낮은 신분의 사람들도 첩을 두는 것을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박동욱의 논문에서는 이 시를 두고 ‘실제로 섬의 특

111) 박동욱, 「조정철의 「탐라잡영」 연구」, 東洋漢文學研究 제32집, 東洋漢文學會, 2011, 253쪽.

112) 「耽羅雜詠」其十六 284면, 591쪽.

113) 위와 같은 곳. 時男口爲五萬餘 女口爲七萬餘.

114) 정조실록 44권 정조 20년 1월 15일.

성상 남자들은 어로에 종사했다가 뜻하지 않은 사고에 노출되기 십상이었고, 그 결과, 항상 남자의 숫자가 부족했으니 자연스레 첩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헌이 이 시에서 첩 두기를 무조건 퇴폐적인 풍습으로 몰아가는 것은 본도인에 대한 입도인의 폭력적 시선에 다름 아닐 것이다.¹¹⁵⁾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이 시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선부른 판단이라 여겨진다. 그 당시 제주민들 사이에 일반화 된 첩 두기는 이미 풍속으로 굳어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여, 정헌은 이 시문 말미에 ‘절로’ 라는 단어를 넣어 첩 두기가 제주의 풍속이 된 이유를 행간 사이에 넉넉히 풀어 놓고 있는데 박동욱은 여기에서 정헌이 첩 두기를 무조건 퇴폐적인 풍습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박동욱은 또한 이를 ‘본도인에 대한 입도인의 폭력적 시선’이라고까지 하고 있는데 이는 다소 무리가 있는 주장이라 할 것이다.

풍속에 관한 시를 한 편 더 보기로 하겠다. 담배가 일본을 거쳐 조선에 전해진 것은 17세기 초인 1609년에서 1618년 사이이다.¹¹⁶⁾ 이후 담배는 조선에서 크게 유행하여 임금으로부터 천민에 이르기까지 흡연을 즐겼다. 그리고 濟州島도 이 유행에서 예외가 아니었다. 그런 면에서 이 시는 제주의 흡연 유행에 대한 시인 것이다.

| | |
|-------------------------|-------------------------|
| 生平赤憎淡婆鬼 | 평생 담배 귀신을 몹시 미워하니 |
| 化作南方一妖卉 | 남방의 한 요망한 풀이 되었다네 |
| 島俗不知廉恥重 | 섬 풍속 염치가 중한 것 모르고 |
| 尋常逢處輒搖尾 ¹¹⁷⁾ | 예사로 만나는 곳마다 제멋대로 꼬리 흔드네 |

담배는 조선에서 크게 유행하여 임금으로부터 천민에 이르기까지 흡연을 즐겼다. 그리고 제주도도 이 유행에서 예외가 아니었던 것 같다.

정헌은 “속설에 담과라는 요녀가 죽어서 남초로 변하여 세상 사람들 마음을

115) 박동욱, 「조정철의 「탐라잡영」 연구」, 東洋漢文學研究 제32집, 東洋漢文學會, 2011, 257쪽.

116) 안대회 『담바고문화사』, (문학동네, 2015) 31쪽.

117) 「耽羅雜詠」其二十七, 288면, 594쪽.

홀리게 한다고 한다. 탐라의 풍속에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 없어 부모 형이나 어른 앞에서도 담뱃대를 물고 있으며 사람을 만나도 염치를 돌아보지 않고 손을 벌려 담배를 구걸한다”고 하여 탐라는 담배 피우기가 풍속이 되었다고 지적하면서 그 폐단을 서술하고 있다. 어른, 아이 가리지 않고 아무데서나 불을 댕겨 담배를 태우는 모습과 사람을 만나면 염치도 돌아보지 않고 손을 벌려 담배를 구걸하는 모습을 이 詩 말미에 ‘제 멋대로 꼬리를 흔든다’고 표현함으로써 담배에 대한 폐단을 고발하고 있다.¹¹⁸⁾

다음은 제주 여인들의 옷차림에 대한 이야기이다. 정헌의 눈에 비친 제주는 모든 것이 뒤섞여 어지럽기 짝이 없는 섬이었다.

| | |
|-------------------------|-------------------------|
| 太守衙門自紛紜 | 태수의 아문 절로 어지러우니 |
| 吏民奔走無朝曠 | 아전과 백성들 때도 없이 분주하네 |
| 城中女子喪廉恥 | 성안 여자들 염치도 없어 |
| 來往尋常不着裙 ¹¹⁹⁾ | 길거리를 오가며 예사로 치마도 입지 않네. |

아전과 백성들은 상하 구분도 없이 뒤섞여 왔다 갔다 하고 더욱 해괴망측한 것은 성 중에 사는 여인들이 길을 왕래하면서도 치마를 입지 않고 있음을 개탄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의 시에서는 정헌의 이러한 시각에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 |
|-------------------------|--------------------------|
| 旌城小女值朱炎 | 정의성 소녀들 퇴약별에 |
| 下不爲裳上不衫 | 아래로 치마도 아니고 위로 적삼도 아닌 옷에 |
| 十字街頭闐闐地 | 십자 길 저자거리 |
| 負瓶汲水語喃喃 ¹²⁰⁾ | 허벅지고 물 길러 가며 재잘거리네. |

집집마다 우물이 있었던 육지와는 달리 제주에서는 식수가 귀해 샘으로 물

118) 『耽羅雜詠』其二十七, 288면, 594쪽. 諺傳淫婦淡婆死而化作南草 述惑天下人. 耽羅之俗無人不吸草. 父兄長老之前猶橫竹 而逢人不顧廉恥 開手丐乞故云運

119) 『耽羅雜詠』其十九, 285면, 591쪽.

120) 『耽羅雜詠』其十八, 284면, 591쪽. 汲水女以大瓶納竹筐負而行.

을 길러 다니는 일들은 주로 여자, 그것도 나이 어린 소녀들의 몫이었다.

아래로 치마도 아니고 위로 적삼도 아닌 옷을 입은 정의현 소녀들의 모습은 정현의 눈으로 보기에 민망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정현은 물을 담은 허벅을 대바구니에 지고 가면서도 힘든 내색은 커녕 오히려 재잘거리며 저자거리를 지나는 해맑은 제주 소녀들의 모습을 목도하게 된다. 이 풍경을 바라보며 어찌면 정현은 이 어린 소녀들의 모습 속에서 때 묻지 않은 제주민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허벅지고 물을 길러 가는 것이 어린 소녀들에게는 다소 버거운 노동이었을 수도 있었을 것인데 재잘거리며 간다는 절구에서는 경쾌함까지 느껴지고 있다.

한편, 제주의 어린 소녀들에게는 그나마 밝은 모습이 엿보였지만 정작 제주여인들의 삶은 피폐하기 그지없었다. 이 부분에서 회헌의 「雜詠」 중에서 유일하게 제주여인들의 꺾절한 삶을 드러낸 시문이 있어 그 한 편을 소개한다.

| | |
|-------------------------|--------------------------|
| 村女露身裙不成 | 시골 아낙네 치마 부실하여 몸 드러내고 |
| 源泉汲處負瓶行 | 먼 곳 샘물을 길러 허벅지고 간다네 |
| 兩妻一室生涯苦 | 처첩 한 집안 살이 고통스러워 |
| 日暮杵歌多怨聲 ¹²¹⁾ | 해 저물면 절구 찼는 노래 원성 같이 들리네 |

이는 회헌의 「雜詠」 其十四의 내용이다. 이곳에서 회헌은 제주의 아낙들의 피폐한 삶을 피력하고 있는데 제주의 아낙들이 부지런하다고는 하나 이 부지런함은 분주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살아 갈 수 없는 제주여인들의 기막힌 삶이 숨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시에서도 드러나 있듯이 맷돌 방아 노래의 그 음조가 애달프게 들리고 방아일 역시 괴로워 그것이 원성처럼 느껴진다고 하고 있다.¹²²⁾ 회헌이 쓴 「雜詠」 22수에서 제주여인들의 꺾절한 삶을 드러낸 시문은 이 한편에 그치고 있지만 반면 정현이 쓴 「雜詠」 중에는 제주민이나 제주여인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다루고 있는 시편은 앞에서도 밝혔듯이 다수이다.

정현의 시문집 곳곳에는 제주인의 삶이 아주 자세하게 묘사되고 있다. 이는

121) 김윤중, 「悔軒 趙觀彬의 耽羅雜詠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0), 24쪽.

122) 위 논문, 24~25쪽.

그가 제주에서의 유배기간이 다른 유배객에 비해서 길었던 이유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정헌이 유배기간 동안 일부 제주민들이 그에게 보내 주었던 아낌없는 사랑 때문이었다 할 것이다. 이는 정헌으로 하여금 잊지 못할 고마움이었으며 또한 정헌이 제주민들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 증거이기도 하다. 이러한 증거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정헌이 해배된 후 홍문관 교리로 있다가 순조 11년 (1811) 6월에 제주목사 겸 전라도 방어사로 다시 제주도로 도입하게 된 것이다¹²³⁾

| | |
|-------------------------|------------------------|
| 潛女衣裳一尺短 | 잠녀의 옷 한자로 짧아 |
| 赤身滅沒萬頃波 | 알몸으로 만경 파도에 무자맥질 |
| 邇來役重魚難得 | 요즈음 일은 버겁고 어물은 잡기 어려운데 |
| 鞭朴尋常幾處衙 ¹²⁴⁾ | 채찍질은 예사요 관아는 몇 번이나 갔던가 |

예부터 제주에서 생산되는 해산물들은 진귀하여 임금님에게 진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로 귀한 분들에게 선물로 많이 애용되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정작 제주의 잠녀들은 이런 진귀한 해산물들을 캐기 위해 목숨을 담보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이들의 생업을 위한 일이라기보다는 관가에 바칠 물품 중 필수적으로 들어 가야할 물품을 준비하는 일이었다고 보는 편이 맞는 시각이다. 그 당시 제주의 관리들은 제주를 하루라도 빨리 떠나길 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이를 위해 한양, 즉 지금의 서울의 권세가들에게 뇌물을 쓰고자 하였다. 그 뇌물 중 이곳 제주의 특산물인 전복을 비롯한 각종 해산물은 최고의 물품이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관리들은 이러한 특산물을 갈취하여 육지로 실어 보내어 거액을 챙기는 일까지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 이러한 연유로 인해 잠녀들의 삶은 말 그대로 노예와 같은 삶이었다.

해녀의 삶에 관한 이야기는 정사보다는 개인문집을 통해서 종종 찾아 볼 수 있다. 바다에서 전복을 채취하고 해조류를 다는 잠녀(潛女)와 포작인(鮑作人)의 작업은 가장 천하고 힘든 노동 중의 하나였다.

123) 趙源煥 編著, 『楊洲趙氏史料選集』, 保景文化史, 1994, 890쪽.

124) 『耽羅雜詠』 其十七, 284면, 591쪽.

김상헌의 표해록의 기사에는 “본주(本州)에 바쳐야 할 전복의 수가 극히 많고, 관리들이 공(公)을 빙자하여 사리(私利)를 도모하는 것이 또한 몇 배나 되어서 포작하는 자들은 그 고역을 이기지 못하여 흩어져 떠돌다가 물에 빠져 죽어 열 사람 중에 두 셋만이 남게 되었으나 필요하다고 걷어 들이는 물건은 옛날보다 줄지 않았다. 그래서 포작인의 아내도 남편이 채우지 못한 양을 보완하여야 하므로, 원한이 남아 있어도 오히려 거지 노릇을 하다 죽을지언정 포작하는 사람의 아내가 되려고 하지 않는다고 했다.¹²⁵⁾

또한 잠녀의 옷은 오늘날의 고무 재질로 만든 잠수복이 아니라 면 소재인 ‘소중이’라는 지금의 원피스 수영복과 비슷한 모양의 짧은 옷이었다. 그것을 입고 잠녀들은 여름이나 겨울이나 차가운 바다에 뛰어들어 해산물을 채취하였다. ‘한자’ 밖에 안 되는 옷을 입고 물질을 하는 모습이 육지에서 온 정헌에게는 알몸으로 잠수를 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다. 알몸으로 만경과도에 몸을 맡겨 자맥질을 하는 해녀들은 그야말로 매년 목숨을 담보하는 일이었다. 일은 어렵고 어물은 잡기 어려운데 관아에서는 사람을 소와 말처럼 채찍으로 다스리면서 저들의 욕구를 채우려하는 모습을 보며 정헌은 이 땅의 제주 여인 더 나아가 제주민들이 겪는 고초에 무한한 연민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유배 초기와는 많이 달라진 정헌의 시각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부분이라 여겨진다.

그런데 박동욱은 「조정철의 「耽羅雜詠」 연구」라는 논문에서¹²⁶⁾ 정헌의 「雜詠」의 내용을 ‘척박한 풍토와 야만적 풍속- 其二十, 其二十日, 其十七, 其二十三, 其十六, 其二十七-, 탐라관원에 대한 적의와 유배 현실 토로-其五, 其十五, 其二十八, 其二十九, 其三十三-, 제주도 부역의 실상과 그 곤욕-其九, 其十, 其十三, 其三十二,-, 「耽羅雜詠」의 문학사적 의의-其十二’ 이렇게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가 있다. 박동욱은 위의 시, ‘雜詠 其十七’을 이 분류 중 야만적 풍속의 범주에 놓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시를 풀이하는 과정에서 ‘잠녀의 옷은 한 척 짚 짚막하여 알몸으로 너른 파도에 자맥질하네’라는 표현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위의 시를 그의 논문 본문의 범주인 ‘야만적 풍속’에 넣을 것이 아니라 ‘제주도 부역의 실상과 그 곤욕’ 이 부분에 넣어야 마땅

125) 김상헌, 『남사록-「표해록」』, 홍기표 역, 제주문화원, 2008, 99~100쪽.

126) 박동욱, 「조정철의 「탐라잡영」 연구」, 東洋漢文學研究 제32집, 東洋漢文學會, 2011, 254~255쪽.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시 첫수에 소개된 ‘잠녀의 옷은 한 척쯤 짚막하여’라는 이 부분은 시 전체의 맥락으로 보았을 때, 고된 부역을 고발하고자 가져온 구절이지 야만적 풍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이 결코 아닌 것이다.

덧붙여 관리들의 수탈에 관한 이야기를 한 가지 더 소개하면 제주는 섬 중에서도 수도인 한양과 가장 멀리 떨어진 섬이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들 마음대로 전횡을 일삼기에 충분한 곳이었다. 그들은 임기동안 마구잡이식 의견들을 내어 그때그때마다 제주민들을 요역에 불러내어 농사철에 농사도 짓지 못하게 하는 폐단을 서슴지 않았다. 이러한 폐단을 정조 5년(1781)에 바꾸어 고쳤는데 그 폐단은 오히려 목사를 위시한 관리들의 주머니를 더욱 두둑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정헌은 이 실상을 다음의 시편을 통해 밝히고 있다.

| | |
|-------------------------|-----------------------------|
| 無才無畧降生謨 | 제주도 없고 책략도 없는 자가 억지로 계획을 내어 |
| 釐正名爲潤橐須 | 폐단을 개정한다 하면서 주머니를 채우네 |
| 苦歎避趨皆有賂 | 백성들 잠시나마 고생을 피하려고 뇌물을 바치는데 |
| 牛黃蠙貝與珊瑚 ¹²⁷⁾ | 우황, 진주와 산호라네 |

본 고을은 요역 인원을 채우지 못하여 사또가 새로 부임할 때마다 각각이 의견을 내 왔다 갔다 하니 그 폐단이 어지러웠다. 신축년 이우진이 정의 현감이 되어 옛 제도를 크게 바꾸고 ‘대이정’이라 하였다. 공사간에 모두가 도탄에 빠졌는데 이정감색은 갑자기 부자가 되었다. 내가 정의에 온 것은 이우진이 이미 돌아간 뒤였으나 백성들이 계속 원망하는 소리를 하고 있었다. 이에 사실을 기록한다.¹²⁸⁾

그때그때마다 바뀌는 정책은 제주민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하였다. 관리들은 물론 폐단을 없애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정책이 바뀔 때마다 백성들은 고된 일을 피해보려고 우황이나 진주, 산호를 관리들에게 뇌물로 바치고 이 뇌물로 인해 저들은 갑자기 부자가 되는 것이다. 정헌은 저들의 주머니를 채워준 뇌물들은 결국 제주 백성들의 땀과 눈물과 피였음을 시의

127) 『耽羅雜詠』其十, 281면, 588쪽.

128) 위의 책, 같은 곳. 本州以役名難充 每官長新蒞之後 各出意見 移來移去 其弊紛紜. 辛丑李羽晉爲旌義縣監 大變易舊制 名曰大釐正. 公私塗炭釐正 監色猝成巨富 余來在羽晉 已歸之後 而民口常嗷嗷 故紀實

말미에서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한편, 정현의 「雜詠」의 특성 중의 하나가 제주의 산업에 대한 언급이 많다는 것이다. 그 중 하나인 말 사육에 관한 이야기는 「耽羅雜詠」 33수 중 3수나 된다. 그만큼 말은 제주의 중요한 산업의 하나였다. “원 지원 중에 탐라가 방성 (房星: 馬神을 맡은 별) 분야에 있으므로 목장을 두고 소와 말을 방목하면서 달로화적을 파견하여 감목하였다. 후에 비록 조선에 환속되었지만 지금도 국둔마를 원두마라고 부른다. 제주에 六所, 정의에 二所, 대정에 二所, 또 우도에 목장이 있다”¹²⁹⁾ 라고 원주에 설명하고 있다.

제주는 예나 지금이나 말을 기르기에 매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원은 제주 경영이 시작된 이래(1273~1373) 제주에 국립 목장을 설치하고 말을 기르기 시작하였다. 1276년 (충렬왕 2) 몽골은 본국의 말을 들여와 제주 수산평에 풀어 놓았다. 이로써 제주 목마장이 제주에 처음 설치되었고, 다음 해 제주 서쪽 고산리 일대로 확대, 분화되었다.¹³⁰⁾ 그 결과 제주는 몽골의 직할령이 되기 이전부터 국가적 말 수요의 상당량을 채울 만큼 말 사육이 번성했던 지역이다.

이러한 사정은 조선조에도 달라지지 않아 제주에 六所, 정의에 二所, 대정에 二所, 또 우도에 목장이 설치되고 말이 사육되었다.¹³¹⁾ 그만큼 제주의 말 사육은 조선에 있어서 중요한 기간산업의 하나였음에도 불구하고 말 사육을 담당했던 제주민들은 대우는커녕 오히려 더 큰 고통 속에 놓이게 된다.

| | |
|-------------------------|-------------------------|
| 萬千山馬列三場 | 수많은 산말이 삼장에 줄지어 있으니 |
| 在昔何人築此墻 | 그 옛날 그 누가 이 담을 쌓았던가 |
| 聞道邇來金永綏 | 듣건대 근래의 김영수 목사라는데 |
| 便民一計却蒼茫 ¹³²⁾ | 백성 편하게 한 계책이 아득하게 되어버렸네 |

이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선조의 제주도 마정에 대하여 간단하나

129) 「탐라잡영」, 其十三, 282면, 589쪽. 元至元中 以耽羅在房星分野 置牧場放牛馬. 遣達魯花赤以監之後 雖還屬於我 而至今尙稱國屯馬曰元屯馬. 濟州六所旌義二所大靜二所又有牛島

130) 전경수 외 『탐라사의 재해석』, (제주발전연구원, 2013), 204쪽.

131) 「耽羅雜詠」 其十, 281면, 588쪽.

132) 「耽羅雜詠」 其十五, 283면, 590쪽.

마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정헌은 이 시의 原註에 이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였다.¹³³⁾

한라산에 방목하는 말을 산마라고 한다. 子, 午, 卯, 酉년에 목사가 교래촌에 도착하여 삼군의 남자들을 동원한다. 노소 할 것 없이 적에 따라 모두 동원하여 백록담에서 말을 몰아 삼장에 잡아들이는데 첫째 날은 상장에 둘째 날은 침장, 셋째 날은 녹산장이다. 이렇게 해서 점열하여 山자 낙인을 한다. 말을 몰 때에 수만 명의 군정이 한꺼번에 울타리를 이뤄, 겹겹이 된 바위와 절벽, 깊숙한 골짜기와 깊은 숲을 찾아보지 않는 곳이 없다. 이렇게 백성들 동원해서 방목하는 말만 거두어들이는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산에 동원되었기 때문에 멧돼지, 노루 꿩 등이 셀 수도 없이 쫓겨 내려온다. 목사는 이들을 잡기 위하여 동원된 백성들을 몰이꾼으로 삼아 사냥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잡은 사냥물이 거의 산더미를 이루는 사냥이다. 말몰이가 끝나고 돌아올 때는 겨울 추위가 닥치고 동원에 6, 7일이 소비된다. 노숙하는 곳이 산과 들이기 때문에 백성의 사망자가 속출하여 그 괴로움을 견디기 어려웠다.

기해년(1779년, 정조3)에 목사 金永綬가 백성의 소원에 따라 중산간 물과 풀이 좋은 곳에 말이 흩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담장을 쌓았다. 산에 올라 험한데 숨은 경우에는 목자로 하여금 해마다 점검하기를 원 시대의 둔마를 관리했던 것과 똑같이 하니 백성들이 편리하고 산마 또한 잃어버릴 염려가 없었다. 신축년(1781년, 정조5)에 어사 朴天衡이 테우리들의 말을 한쪽 말만 들고 군데군데에 쌓았던 담장을 없앨 것을 계문하였다. 또 다시 옛날과 같이 3년 사이에 군정을 동원하여 몰이와 사냥을 하였다.

고통을 겪어본 사람은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안다. 정헌의 「雜詠」을 읽다 보면 제주민들이 겪는 고통이 곧 정헌 자신의 고통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 고통의 근원이 알고 보니 대다수가 육지에서 온 자신과 같은 신분의 사람들이라는 것에 대해 정헌은 분노를 넘어서 절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정헌은 김영수 목사에게서 적지 아니 시달림을 받았던 사람이었고 따라서 그에 대해서 좋지 않게 말하는 시도 살펴본 바 있다. 그러나 이 즈음 한 사람의 잘못된 관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제주민들이 피해를 입는지를 알게 되기에 이른 것이다.

133) 「耽羅雜詠」其十五, 283~284면, 590쪽. 出馬放在漢拏山. 子年卯酉年 牧伯到橋來村 動三邑男丁 無老小 按籍悉起 自白鹿潭驅馬納於三場 一日上場 二日針場 三日鹿山場. 於是乎點閱 烙以山字印. 驅馬之際 數萬軍丁 一時打圍層崖絕壁邃谷深林 無不搜覓. 故山猪獐鹿 渾被驅下者 不可勝數 華蟲則殆至山積故大獵. 而歸時值冬寒 動費六七日. 露處山野之故 民之死亡相續 不堪其苦. 已亥牧使金永綬 從民願築間場. 於中山水草最好處 以防馬之散處 上山隱險之地 使牧子逐年驅點一如 元屯馬例 萬姓使之 山馬亦無闕失之患矣. 辛丑御使朴天衡 偏聽牧子之言 啓聞毀撤間場. 又復間三年動軍驅獵 故末句云云

다음은 제주의 산업 중 농사에 관한 이야기다. 제주는 화산섬이어서 토양이 대부분 화산회토이다. 그래서 대부분 토지가 척박하여 농사를 짓기가 힘든 곳이었다. 이러한 토질 때문에 제주도에서의 농사는 물과는 확연이 달랐던 것이다.

| | |
|-------------------------|-------------------------|
| 海中懷土自浮操 | 바다 가운데 토양 원래 뜨고 건조해서 |
| 耕不爲深時不早 | 밭갈이 깊게 못하고 농사 철도 빠르지 않네 |
| 播穀仍教牛馬踏 | 파종하고 나서 소 말로 밟게 하니 |
| 礮田處處平如掃 ¹³⁴⁾ | 밭다지기 곳곳마다 비질한 듯 평평하네 |

‘섬 안의 토질이 뜨고 건조해서 봄 밭갈이부터 깊이 갈지를 못하고 두 번 세 번을 간다. 망종 후 10일쯤 되는 날에야 씨뿌리기를 시작하여 초복 후 4, 5일에 그친다. 늘 메기장, 조를 파종한 다음에는 즉시 둔장의 소, 말 백여 필을 몰아다가, 빗자루 쓸 듯 평평하게 이리저리 밟아 길처럼 단단하게 한 다음에야 비로소 그만두고 다른 밭으로 간다. 3, 4일이 지나면 씨겉질이 터지고 싹이 나서 자란다. 만약 밟아주지 않으면 종자가 말라버려 뿌리를 붙일 수 없다. 그래서 시편 안에 사실을 기록했다.’¹³⁵⁾

화산섬인 제주의 토질은 들뜨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소와 말을 이용하여 땅을 밟게 하는 농사법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농사방법을 정헌은 이 시에서 아주 소상하게 그려내고 있다.

이렇게 섬이라는 환경은 비단 토양 뿐 만 아니라 식수를 얻는 데도 매우 어려움이 많았다. 물 문제로 인해 정헌이 겪었던 어려움은 『처감록』 전체에서 여러 번 등장하는 이야기의 소재였다. 이러한 식수 문제 때문에 정헌은 자주 배탈이 나거나 瘴氣에 시달리곤 하였다고 소개하고 있다¹³⁶⁾

蹄涔行潦雜蟲并 말발굽과 길에 고인 물 잡충이 섞여

134) 『耽羅雜詠』 二十一, 235~236면, 592쪽.

135) 위의 책, 235~236면, 592면. 島中土性浮燥 自春耕田而不深墾 再耕三耕至. 芒種節後十許日 始落種止於初伏後四五日 而每於稷粟播種之後 卽驅屯牛馬百餘匹 亂蹠之平如掃堅如道然後 始放而之他田. 過三四日坼甲而生. 若不踏蹠 則種子乾燥着根不得 篇內紀實

136) 위의 책, 『敬次悔軒集韻 書島中卽事』, 원본 73면에 “濕瘴常侵戶 / 荒塵每入簾 / 腥盤胃已弱 / 濁井病還添,”라는 구절이 있다.

從古旌城水不清 예부터 정의성 음료수 맑지 못하니
 安得借來疏勒劍 어떻게든 소록검을 빌려왔으면
 飛泉湧出濟蒼生¹³⁷⁾ 날듯이 세차게 솟는 샘 창생을 구제할 것을...

1777년(정조 1) 정헌이 제주성에 유배된 후 다시 1782년(정조 6) 1월, 그는 정의현으로 이배 명령을 받게 된다. 그는 이곳에서 8년 동안 유배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곳 정의현은 제주목에 비하면 모든 면에서 상황이 더 나빠졌다 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물 사정은 정헌은 물론이거니와 이곳, 정의현 주민들에게 있어서도 이만저만한 고통이 아니었지 싶다. ‘정의에는 우물이 없고 오직 웅덩이에 고인 물이나 비가 내려 고인 물 밖에 마실 수가 없었는데 여기에 물벌레가 섞여 있었다.’¹³⁸⁾고 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식수로 인하여 오는 문제는 식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로부터 파생되는 질병까지 아울러야 할 문제였던 것이다. 왜냐 하면 정헌이 이러한 물 사정으로 인해 오래도록 장기에 시달렸기 때문이다.

이 어려움은 자신의 어려움이 아니라 제주민 모두의 어려움이였다. 이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정헌은 말밭굽에 고여 썩거나 잡충이 섞인 물을 먹는 제주 거민들에게 소록검이라도 빌려 와 세차게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게 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시로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주목할 것은 제주목에서 정의현으로 이배된 이후 정헌이 쓴 연작시, 즉 「雜詠」에서는 전과는 확연하게 달라진 정헌의 시각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정헌은 또 다른 「雜詠」의 내용을 통해 제주민들의 생계 수단이기도 한 사냥과 이와 관련한 의복문화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다. 예부터 제주도는 한라산의 짙은 숲, 넓은 초원 등 모든 짐승과 새들이 서식하기에 대단히 알맞은 자연 생태계를 갖추고 있었다. 맹수가 없는 대신에 노루, 사슴, 꿩, 멧돼지, 지다리(일명 오소리) 등이 많았다. 제주에서는 사냥꾼들을 일명 ‘사농바치’, ‘총바치’, 또는 ‘포수’라 하는 용어까지 따로 있을 만큼 사냥이 하나의 엄연한 ‘業’으로 존재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져왔다.¹³⁹⁾ 이러한

137) 『耽羅雜詠』其二十二, 286면, 592쪽.

138) 위와 같은 곳. 旌義無泉 惟以潢池奉天水資飲 而水蟲相相雜

139) 『濟州道文化資料叢書 2, 濟州의 民俗 II』, 제주도, 1994, 382쪽.

사냥바치들은 가을이 되면 우거진 숲에서 활동하기 좋거나 한밤을 세울 수 있도록 개가죽이나 소가죽으로 만든 긴 두루마기 형 코트를 입고 사냥을 하였다고 한다.¹⁴⁰⁾ 농사철이 끝나면 제주 산간 주민들은 사냥 준비를 하고 숲에 들어가 짐승들을 쫓았다. 토양이 척박하여 농사짓기가 힘들었던 제주 산간 주민들은 사냥이 생계수단이였다.

『탐라순력도』에 그려진 녹산장과 갑마장의 행사인 ‘橋來大獵’은 1702년(숙종 28) 10월 11일에 제주판관, 정의현감과 대정현감과 산마장의 김진혁 감목관이 참여하여 임금님께 진상하기 위한 산짐승과 날짐승을 사냥하는 그림으로 지금의 표선과 남원 지경으로 대록산, 소록산, 그리고 흑악(검은 오름), 여문영아리오름, 따라비오름 등이 표기된 것으로 보아 상장과 녹산장(갑목장)으로 생각되며 현재 정석비행장, 제동목장, 가시, 토산, 수망, 태흥, 신흥공동목장 지역이다. 당일 사냥에 참여한 관원은 제주목사, 정의현감, 대정현감과 감목관이며 사냥에 동원된 인원은 마군 200명, 보졸 400명, 포수 120명으로 기록되고 있다. 사냥물은 사슴 177마리, 돼지 11마리, 노루 101마리, 꿩 22마리였으며¹⁴¹⁾ 이때 생포한 사슴은 이듬해 (1703년) 4월 28일 비양도에 방사했다는 기록¹⁴²⁾이 있을 만큼 사냥은 제주 거민들의 생계수단이였으며 사냥에서 얻은 짐승의 털이나 가죽은 곧바로 주민들의 의복이 되어 주었던 것이다. 이에 정헌은 이 시 말미에 原註로 이렇게 기록해 두었다.

정의 사람들은 물론 고을선비, 교리, 노예, 미천한 군졸까지 황우의 털병거지, 너구리 모자를 항상 쓰며 심지어는 입직 교리까지 이런 모양으로 현감이 일을 보는 대청마루에 출입을 한다. 흰 개가죽 바지, 누런 개가죽 두루마기 같은 것은 나들이옷에 견준다. 뜻하지 않게 같은 글자를 쓰는 세상에서 이런 아득하게 떨어진 곳이 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다. 또한 관북 지방과 비교하면 몇 십층이나 밑으로 떨어졌는지 모르겠다. 개연함을 이기지 못해 문득 이렇게 사실을 기록한다.¹⁴³⁾

140) 『제주도 민속사전』, 제주특별자치도 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일신옵셋인쇄사, 2012, 19쪽.

141) 이형상 『탐라순력도』, 제주시 제주대학교 박물관, 제주도인쇄공업협동조합 주식회사 로얄 프로세스, 1994, 26~27쪽.

142) 『표선면 역사문화지』, 제주특별자치도 한국문화원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09, 일신옵셋인쇄사, 655~656쪽.

143) 『耽羅雜詠』二十六, 287~288면, 594쪽. 雜詠, 二十六. 旋義人無論儒鄉校吏下隸賤卒 恒着黃牛毛氈笠. 地獮皮帽子 甚至於入直校吏 以此貌樣出入於縣監聽事之堂 而若其白狗皮袴子黃狗皮周衣 比之核美之服. 不意同文之世 有此荒絕之地 又比關北 不知落下幾十層 不勝慨然輒此紀實

| | |
|-------------------------|-----------------------|
| 校吏奔趨太守庭 | 태수의 마당에 교리 분주하게 다니는 데 |
| 衣冠種種使人驚 | 의관은 가지가지 사람을 놀라게 하네 |
| 黃毛笠子獺皮帽 | 누런 털 삿갓 너구리 가죽 모자 |
| 帶用生麻繩作纓 ¹⁴⁴⁾ | 생마로 띠를 하고 새끼 꼬아 갓끈 맺네 |

제주민들의 의복문화는 정헌이 보기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었다. 흰 개가죽 바지나 누런 개가죽 두루마기를 나들이옷으로 삼는 이 곳 제주의 실태가 정헌의 눈에는 굉장히 낯설게 느껴졌던 것이다.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짐승의 털이나 가죽으로 옷을 해 입고 관아를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의관정제의 마지막 단계인 갓을 매는 끈도 새끼를 꼬아 매고 있다는 사실 앞에 정헌은 매우 당혹스러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한 고을의 수장의 잘못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목숨들이 희생되었는지를 정헌은 이 시를 통해 고발하고 있다.

| | |
|-------------------------|----------------------|
| 忍說甲申歲歉荒 | 차마 말하랴, 갑신년 흉년들을 |
| 生靈三萬半銷亡 | 산 목숨 3만의 반이 죽어버렸네 |
| 謾天島伯能無罪 | 하늘을 속인 도백 무죄가 되었으니 |
| 自有明神質在傍 ¹⁴⁵⁾ | 옆에 계시는 신명께 곁에서 물으려네. |

‘영조 40년 갑신년 (1764년) 제주 온 섬이 홍수로 赤地가 되어버렸는데 목사李明運은 임금에게는 거짓으로 평년과 같았다고 장계를 올리고 백성들로부터는 법대로 요역을 받아내고 진휼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이듬해인 영조 41년 乙酉년 (1765년) 봄에 굶어죽은 백성이 만 명으로 헤아려 악명을 남기고 있기 때문에 운운한 것이다.’¹⁴⁶⁾라고 시문 말미에 덧붙여 말하며 그 해 그 참혹했던 상황은 고발하고 있다. 그는 과거 제주민들이 관리, 즉 한 사람의 목사의 잘못으로 얼마나

144) 『耽羅雜詠』 二十六, 288~289면, 594쪽.

145) 『耽羅雜詠』 其二十八, 288면, 595쪽.

146) 위의 책, 같은 곳. 英祖甲申 耽羅一島以大水爲赤地. 牧使李明運謾以平年啓聞 準捧徭役不設賑恤. 乙酉春 民之餓死以萬爲計 至今遺臭 故云云.

많은 제주민들이 목숨을 잃었는가를 돌이켜 보게 하고 있는 것이다.

| | |
|-------------------------|-----------------------|
| 木無粵櫟馬無尾 | 나무는 싹 안 나고 말은 꼬리가 없으니 |
| 民口嗷嗷尙墳悱 | 백성들 슬피하며 아직도 분개하네 |
| 況使蒼生溝壑填 | 하물며 창생들 도랑 구덩이를 메웠으니 |
| 誰將爾罪告神鬼 ¹⁴⁷⁾ | 누가 장차 그 죄를 귀신에게 고하리 |

덧붙여 이명운은 거짓 장계를 올려 그렇게 많은 백성들을 죽인 것에서 그치지 않고 더욱 가혹한 수탈을 자행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정헌은 다시 고발하고 있다.

‘李明運은 크게 탐욕을 부려 백성들이 피땀을 흘린 진주, 거북껍질, 산호, 앵무조개, 우황, 녹용, 치자, 양태 등을 빼앗은 것이 다만 수만 금일 뿐만 아니라 백성의 물산이 매우 탕진하기에 이르렀지만 오히려 계곡과 같은 욕심을 미처 채우지 못했다. 공사의 둔장의 말꼬리와 갈기를 죄다 잘라내고 산의 나무 중에 무늬가 좋은 것은 모두 가져다가 판자를 만들거나 그릇을 만들었다. 한라산 일대의 산유자, 비자, 용목, 좋은 가지 2년목 등 진기한 나무와 고목은 거의가 싹 쓸어버려 섬사람들 모두가 그 고기를 씹고 싶어 하였다. 尹公이 뺨에 도착하여 명운의 죄상을 언명하였는데 그 계를 올린 가운데 ‘나무는 싹이 안 나고 말은 꼬리가 없으니’ 등의 구절이 있었다. 영조는 진노하여 명운을 종성에 유배 보내고 유진하를 호남병마절도사를 제수하였다. 성명의 결단이 크시니 만백성이 기뻐 손뼉을 쳤지만 도민은 명운을 주살하지 않은 것은 지금까지 분개한다고 하기 때문에 사실을 기록한다.’¹⁴⁸⁾

정헌이 이명운을 비롯한 관리들의 수탈과 폭정을 일일이 예를 들어가며 밝

147) 『耽羅雜詠』, 三十二.의 책, 290~291면, 597쪽.

148) 『耽羅雜詠』 三十二, 209~291면, 597쪽. 李明運大貪婪 浚民膏澤 蟻珠瑋帽珊瑚鸚鵡牛黃鹿茸鬘子涼臺之屬 不啻累鉅萬計 民產甚至蕩竭 猶未充谿壑之慾. 公私屯馬尾鬣盡割 山木之老而有紋者 幾皆所取 或作板子 或造器皿 擎山一面山柚榧子龍木佳柴二年等珍材古木 殆乎濯濯 島人舉欲食肉. 尹公到營聲明運之罪 其啓中有木無 俞櫟馬無全尾等句語. 英廟大震怒 竄明運于鍾城 以柳鎮夏授湖南兵馬節度使. 聖斷廓然 萬姓歎抃 而島民以明運之不誅 至今憤悱云 故紀實

혔던 것은 한 때는 정헌 자신도 나라의 녹을 먹었던 관리였으므로 이러한 학정과 폭정에 대한 자각과 반성이었는지도 모른다.

한편, 다음의 시문에서는 다른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제주에서도 부역과 군역으로 인한 폐단으로 많은 백성들이 고통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새로운 목사가 제주에 부임할 때마다 이 땅의 거민들은 새로 부임한 목사의 취향에 따라 온갖 군역과 노역에 시달려야만 했다. 특히 섬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임금으로부터 하사 받은 권력을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과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남발하고 있음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 | |
|-------------------------|------------------------|
| 黃口簽丁白骨布 | 황구 첨정 백골 징포 |
| 役名偏向是州多 | 요역의 불공정 이 고을에 많아 |
| 百工六苦與三衛 | 갖가지 장인의 육고와 삼위 |
| 無告如今奈爾何 ¹⁴⁹⁾ | 지금 하소연 할 수 없으니 그를 어찌할까 |

‘배의 키잡이에서 말총공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工匠의 손가락이 구부러졌으며 전복잡이, 테우리, 遺軍, 배결군, 북쟁이, 紙匠의 여섯가지를 六苦役이라 한다. 甲士, 武學, 定虜衛의 세 가지를 三衛라고 한다. 기타 役의 이름도 매우 많아 백성들이 徭役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한 것이다.¹⁵⁰⁾

이 시의 말미에 정헌은 제주지역의 군포의 폐단과 노역에 대해 부연 설명하고 있다. 섬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은 고립을 의미한다. 이 고립은 권력을 쥔 자들에게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말도 안 되는 명목으로 온갖 세금과 노역으로 백성들의 피를 빼는 이러한 상황을 정헌은 그 누구보다도 더 주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듯, 관원들의 실명을 직접 공개하면서 관원들의 사건의 전말이 드러내고 또 저간의 사정을 확실히 알 수 있게 原註까지 다는 일은 시문에서 극히 드문

149) 『耽羅雜詠』 其九, 280~281면, 587쪽.

150) 『耽羅雜詠』 其九, 280~281면, 587쪽. 自柁工至繫工 各色工匠指不勝僕. 鮑作牧子遺軍船柁漢紙匠 謂之六苦役. 甲士武學定虜衛 謂之三衛 其他役名甚多 民不堪徭故云

일이다. 이 기록들은 유배인이나 제주 민들이 관원들에 의해서 어떠한 취급을 받았는지 파악하는 데 큰 도움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박동욱도 그의 논문에서 지적한 바 있다.¹⁵¹⁾

그러나 박동욱의 논문¹⁵²⁾ 중 ‘탐라잡영의 문학사적 의의’ 「雜詠」其十二¹⁵³⁾의 내용을 놓고 ‘조정철은 제주의 유생들을 싸잡아서 우매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이는 제주에 대한 그의 시각을 대변하는 말로 볼 수 있다. 조정철은 지리나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최대한 압축해서 간략히 썼고, 풍속과 실제 사건 등에 집중했다. 그의 작품은 이전의 제주 연작시에서 보이는 호기심에서 벗어나, 原註를 통해 상세하고 풍부한 기록을 남겼다는 데 큰 의의를 둘 수 있다. 또,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濟州史를 복원했다는 점은 의미가 남다르다. 그러나 유배인의 신분임을 감안했을 때 제주를 있는 그대로 온전히 그려냈다고보다, 경멸과 폄훼를 주로 하여 부정적인 시각 일색이었다는 점은 일정한 한계로 남는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雜詠」 속에 흐르는 정현의 의식의 흐름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견해라 여겨진다. 이 부분에서 박동욱이 간과한 것은 「雜詠」其十二를 놓고 ‘조정철의 이 시는 제주의 유생들을 싸잡아서 우매한 사람이라 평가하고 있으며 이는 제주에 대한 정현의 시각을 대변하는 말로 볼 수도 있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박동욱의 견해에는 문제가 있다. 먼저 「雜詠」其十二는 「雜詠」其十一¹⁵⁴⁾을 부연 설명하기 위한 장치로서의 시편인 것이다. 이 두 편의 시에서 정현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제주의 유생들을 싸잡아 우매한 사람이라고 말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주의 유생들에 대해 칭찬하고자 했던 것임을¹⁵⁵⁾ 알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박동욱이 말하는 ‘정현이 유배인의 신분임을 감안했을 때 제주를 있는 그대로 온전히 그려냈다고보다, 경멸과 폄훼를 주로 하여 부정적인 시각 일색이었다는 점은 일정한 한계로 남는다’고 한 견해는 수용할 수가 없다. 이는 서론에서도 말했듯이 『靜軒瀛海處坎錄』 전체를 통해 나타난 정현의 의식의 흐름을 파악하고 나서 그 근거 위에 자신의 견해를 제시해

151) 박동욱, 「조정철의 「탐라잡영」 연구」, 東洋漢文學研究 第32집, 東洋漢文學會, 2011, 274쪽.

152) 위의 논문, 271쪽.

153) 위의 논문 273~274쪽, 旌義靑衿三五徒 縱云勤業一何遇 北學中原雖未得 正邪宜質橘林儒

154) 「耽羅雜詠」, 其十一, 282면, 588쪽. 儒風最說濟州淳 趨向能知吾道純 爾輩莫言孤島僻 橘林一院自彬彬

155) 위와 같은 句, 橘林一院 儒風甚淳朴 趨向極純正 能知吾道之可尊 而南少之做官者 及時輩之過州者 以僻島凌蔑之不暇 故及之.

야했음에도 불구하고 박동욱의 경우에는 「정헌영해처감록」의 어느 한 부분만 따로 분류하여 보았을 뿐만 아니라 「雜詠」 속 시편들의 유기적 관계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살펴보지 않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III. 結論

『靜軒瀛海處坎錄』은 1777년(정조 1년) 정헌이 제주에 유배되어 제주목에서 5년, 그리고 정의현에서 8년, 그 이후 다시 추자도로 이배되기 전까지의 유배생활에 대한 심정을 그려낸 시문집이다. 시문집은 총 4권 421수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24수는 연작시다. 이를 더 세밀하게 분류해 보면 제1권에 106수, 제2권에 124수, 제3권에 88수, 제4권에 103수이다. 정헌의 유배기간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제주목에서 5년, 정의현에서 8년, 추자도에서 13년, 전라도 광양에서 2년, 전라도 구례, 황해도 토산, 경기도 장단에서 1년, 모두 합쳐서 무려 29년이였다. 『정헌영해처감록』은 단순히 유배인들이 유배기간 동안 썼던 신세한탄과 같은 지극히 개인적인 기록을 넘어선 다른 차원의 기록물이라고 할 수 있다. 총 4권, 421수의 시문으로 이루어진 이 책은 그 당시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상상도 못할 고초를 겪은 정헌 자신의 유배생활에 대한 개인적인 소회 뿐 아니라 그 당시 관리들의 억압과 폭정 그리고 이로 인해 겪는 제주민들의 고통에 대해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헌의 제주유배생활을 크게 나누어 보면 제주목과 정의현에서의 유배생활로 대별될 수 있다. 이는 유배장소에 따라 분류된 것이기도 하지만 더 엄밀하게 말한다면 정헌의 시에 있어서 의식에 변화가 일어난 시점을 기준으로 나누었다고 할 수 있다. 유배인의 시각에서 바라보던 제주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정헌 자신이 제주민의 시각으로 제주를 바라보는 방향의 변화는 이 시문집의 지니는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한다.

먼저 제주목에서의 유배생활을 살펴보면 먼저 기후와 자연환경에 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다. 높은 습도와 잦은 바람, 그리고 식수에 대한 어려움, 이질적인 언어와 풍속에 대한 어려움을 주로 토로하고 있다. 육지에서 온 유배객에게 있어 제주의 날씨는 극복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제주는 다른 지역에 비해 습도가 매우 높았다. 심한 안개로 인한 풍토병과 오염된 식수로 인한 폐장병 그리고 지네와 독사가 잠자리까지 위협하는 상황을 들어 ‘탐라를 세상에서 가장 나쁜 곳’이라고 까지 했다. 그만큼 정헌에게 있어서 뿐만 아니라 모든 유배객에게 있어서 제주는 최악의 유배지였던 것이다. 단적으로 말하

자면 절도안치라고 하는 유배형은 봉건국가의 권력구조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었던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절도위리 안치되었을 때, 살아서 돌아간다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었기 때문이다. 더불어 제주의 풍속은 정헌을 더욱 힘들게 했다. 통역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제주어와 날 콩잎은 먹는 식생활, 그리고 신분을 가리지 않는 의생활 등은 유배 초기 정헌을 최악의 상태로 몰아넣었다. 그러는 가운데 이런 최악의 유배지에서라도 목숨을 부지하게 해 준 임금의 은혜에 고마워하며 점차 이 곳, 제주에서의 삶을 받아들이게 된다.

이렇듯 제주에서의 유배생활의 연수가 더 해짐에 따라 정헌이 제주에서 만난 사람들의 층도 다양했다. 그가 만난 사람들을 대별해 보면 관리들과 제주민으로 대별 될 수 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관리들은 정헌을 고통 속에 빠트리고 심지어는 사지로 모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인물들을 살펴보면 판관 慶來運이 그랬고 목사 金永綬, 아전 李顯大, 목사 金蒼耆 등이다. 대조적으로 일부 제주민들은 정헌을 보호해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자신들의 목숨을 걸면서 까지 정헌을 지켜 주었음을 알 수 있다. 보수주인 申好와 金潤才, 金應貴가 그들이다. 또한 李昌夏와 金聖麟은 정헌이 유배생활 중 마음을 나누었던 벗이었다. 그리고 정헌에게 있어서 가장 잊지 못할 사람으로 기억되는 사람은 洪允愛였다. 그녀는 ‘향리 홍처훈의 딸이다. 정조 丁酉 (정조 1년, 1777년)에 정헌이 탐라에 안치되었는데, 그녀가 정헌의 처소에 출입을 하였다. 辛丑(정조 5년, 1781)년에 金蒼耆가 의녀를 미끼로 하여 정헌에게 죄를 씌워 죽이려 하였다. 그녀는 金蒼耆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고 고문을 받다가 “공의 삶은 나의 죽음에 있습니다.”하고는 결국 불복하고 목을 매어 죽었다.¹⁵⁶⁾

더욱 흥미로운 것은 정헌의 특이한 이력이다. 1751년 양주 조씨 17세, 괴산공 고손자로 태어난 정헌은 이우당공 조태채의 증손자였다. 1775년 영조 51년 문과에 급제하고 승승장구 하던 중 1777년 6월 역모사건으로 인해 같은 해 8월에 제주에 유배를 오게 되었다. 1803년에 해배가 된 후 1811년에 유배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로 기록되는 통훈대부 제주목사 겸 전라도방어사로 제주에 부임하

156) 『처감록』, 310면, 636쪽. 洪義女鄉史處動女 正宗丁酉 余以罪置耽羅 義女時出入余謫 辛丑壬寅 欲搆余以義女餌殺 機墮突 血肉狼藉 義女曰 公之生在我一死 既不服 又雉懸而殉.

여 1년 동안 제주에서 선정을 베풀었다는 것이다. 이 시문집 맨 마지막 면에 기록된 시 「제홍량묘」가 이때 정현이 제주에 와서 지은 시문이다.

정현도 여느 유배인들과 마찬가지로 초기 유배 단계에는 제주의 자연환경과 기후, 그리고 섬이라는 특수성에서 오는 문화적 이질성 때문에 상당한 고초를 겪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러한 정현에 의식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로는 오랜 기간 제주에 머물며 이곳의 실상들을 속속들이 들여다 볼 수 있었던 이유도 있었겠지만 더러는 그에게 아낌없이 온정을 베풀어 준 일부 제주민들의 사랑이 그로 하여금 제주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정현이 정의현에 이배되었을 때 (1781, 정조5년) 쓴 「耽羅雜詠」은 제주의 역사와 산업과 풍속, 관리들의 탄압과 폭정 그 밖의 제주민들의 의식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이어서 정의현에서의 유배생활을 살펴보면 1781년 정조 5년, 辛丑年에 일어난 金蓄耄 일당의 모함으로 인해 일어난 옥사사건 이후 정현은 정의현으로 이배되게 된다. 정의현으로 이배되어 가는 과정에서 그 노정을 그린 연작시는 당시 제주의 지명이 지금까지도 쓰이고 있는 것으로서 지리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료가 되고 있다. 또한 그가 쓴 「橘柚品題」 15수는 역사상 귤의 종류를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다양하게 소개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이 시들은 문학적 성취도도 물론 값지지만 한 수 한 수가 당시 제주의 귀중한 연구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橘柚品題」는 橘柚類를 품제한 것이다. 이 시에 따르면 당시 제주의 귤유는 乳柑橘, 別橘, 大橘, 金橘, 洞庭橘, 小橘, 唐柚子, 柑子, 金橘, 柚子, 山橘, 青橘, 枳橘, 橙子橘, 石金橘의 15종이 있었다. 이는 김정이가 「제주풍토록」에서 말한 금귤, 유감귤, 동정귤, 청귤, 산귤, 감자, 유자, 당유자 왜귤의 9종에 배하여 훨씬 세분한 것이다. 정현은 종류를 세분한 것 말고도 각 품종마다 매우 자세한 설명을 덧붙여놓고 있는데 이들 중에는 오늘날 감귤 연구에도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한편, 창졸지간, 절해고도 제주에 유배된 정현은 육지와는 확연히 다른 이질적인 풍속을 낯설어 하였다. 그러나 유배 기간이 길어지고 생소하였던 풍토 풍속에 익숙해지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게 되었다.

정헌의 「耽羅雜詠」 33수는 그의 종조부인 晦軒 趙觀彬이 쓴 「雜詠」과는 그 양이나 질적인 면에서 훨씬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정헌은 그가 쓴 「耽羅雜詠」을 통해 관리들의 탐학과 폭정으로 인해 제주민들이 겪는 고통을 함께 공감함은 물론이거니와 이러한 관리들의 탐학과 폭정을 신랄하게 고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33수로 이루어져 있는 연작시 「耽羅雜詠」은 제주를 소상하게 소개하고 있다. 이는 제주의 풍물이나 풍속을 읊은 시들 중에서도 백미로 꼽을 만하다. 이보다 앞서 정헌의 종조부가 되는 조관빈(趙觀彬, 1691~1757)이 제주에 유배되었을 때 「耽羅雜詠」이라는 제목의 22수를 지은 바 있다. 정헌은 『치감록』에서 趙觀彬의 시에 차운하였다고 밝힌 시를 적잖게 남겼는데 이 「耽羅雜詠」이라는 이름도 여기에서 차용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점은 눈으로 확인되는 범주이며 이것과는 다른 차원으로 바라보면 회헌의 「雜詠」과 정헌의 「雜詠」과의 근본적 차이점은 접근방법의 차이임을 알 수 있다. 먼저 회헌의 「雜詠」을 살펴보면 김윤중은 그의 논문¹⁵⁷⁾에서 회헌의 「耽羅雜詠」을 1) 탐라의 위치와 한라산, 그리고 신화 2) 탐라의 역사와 연군 3) 유배지 환경과 오현사 4) 탐라의 생활과 풍속 5) 탐라의 진상품들 6) 유배와 그 정감 등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이는 단지 회헌의 「雜詠」을 그 내용별로 분류하였다는 데에 의의를 둘 뿐이다. 회헌의 「雜詠」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의 「雜詠」은 제주를 보는 시각이 다소 관념적이며 중앙적인 시각으로 출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중 대표적인 예를 들면 其六¹⁵⁸⁾, 其十八¹⁵⁹⁾이다. 이와는 달리 정헌의 「雜詠」은 其一, 첫 편부터 마지막 其三十三까지 매우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내용을 주제별로 나누어 보면 첫째, 제주의 지리적 위치, 둘째, 제주의 역사와 산업 셋째, 제주의 풍속 넷째, 관리들의 수탈 다섯째, 제주민들의 의, 식, 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일련의 어떤 흐름을 가지고 이야기 되었다기보다 그때마다 느꼈거나 겪은 일 중심으로 써내려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정헌의 「雜詠」 중에는 많은 부분이, 예를 들면 관리들의 탐학과 폭정으로 인

157) 김윤중, 「晦軒 趙觀彬의 耽羅雜詠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0) 12쪽.

158) 『회헌집』, 「탐라잡영」 其六, 太朝以來王化宣 周家禮樂禹山川 大哉遠俗懷綏意 民泣明陵雲漢篇.

159) 『회헌집』, 「탐라잡영」 其十八, 螺貝瓊珠玳瑁俱 青皮白蠟石鐘乳 奇珍美料稱茲土 物產由來八路無.

해 고통 당하는 제주민들의 삶을 33수의 잡영 중 8수 중 其二, 其五, 其七, 其八, 其九, 其十, 其二十三, 其三十二 등을 통해 많은 부분 할애하고 있다. 이 밖에도 잡영 중 其三, 其二十二, 其二十八, 其三十一도 정의현 사람들이 겪는 식수 문제와 갑신년(1764년 영조40) 흉년 때 많은 제주민들이 목숨을 잃은 일들을 상기시키고 있다. 또한 정헌 자신도 예외는 없어 이곳 관리들이 섬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자신들에게 주어진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범까지 새로 제정하여 유배인 중에 특별하게 더 자신을 감시하고 고통을 주고 있음을 잡영 其二, 其五, 其六, 其七, 其八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와 반면 회현의 잡영은 제주민들의 고통을 담아낸 내용은 한 두 수에 지나지 않았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관리들의 수탈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정헌이 제주목에서 정의현으로 이배 된 후 쓴 시문 중 특별히 이 「耽羅雜詠」에 가장 잘 드러나고 있다. 이것은 정헌 자신이나 제주민들이나 모두 똑같이 약자의 위치에 있다는 동질감과 더불어 정헌 자신이 유배기간에 비례하여 제주민들에 대한 연민도 함께 깊어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따라서 『靜軒瀛海處坎錄』은 시로 쓴 유배인 한 개인의 기록문일 뿐만 아니라 18세기 조선시대의 중앙정치상황이 가장 멀리 위치한 변방 제주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 중의 하나로 여겨진다. 또한 그 당시 관리들의 횡포가 얼마나 심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 준 예라 하겠다. 중앙의 권력도 섬이라는 특수성 앞에서는 무력하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부분의 이야기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헌영해처감록』이 문학사적으로 크게 조명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 시문집에 실린 작품들이 ‘문학적 성취도’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너무 개인적이며 사실적인 표현으로 문학작품으로서는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평에도 불구하고 『정헌영해처감록』이 제주유배문학의 한 지평을 새롭게 열었다는 데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으로 본다.

참 고 논 저

1. 자료

- 金尙憲 著, 洪琦杓 譯, 『南槎錄』, 제주문화원, 2009.
- 金錫翼 著, 吳文福 監修, 洪琦杓, 白圭尙, 金새미오, 孫基範 譯, 『耽羅紀年』, 제주문화원, 2015.
- 金允植 著, 金益洙 譯, 『續陰晴史』, 제주문화원, 2010.
- 金益洙, 金日宇, 洪琦杓 譯, 『濟州 古記文集』, 제주문화원, 2007.
- 金淨 著, 金日宇 譯, 『濟州 古記文集 -濟州風土錄』, 제주문화원, 2007.
- 金春澤 著, 金益洙 譯, 『北軒集-濟州記錄』, 전국문화원연합회제주지부, 2005.
- 申光洙 著, 金益洙 譯, 『濟州 古記文集 -耽羅錄』, 제주문화원, 2007.
- 安秉宅 著 吳文福 譯, 『浮海文集』, 제주문화원, 2015.
- 李健 著, 金益洙 譯, 『葵窓集』, 제주문화원, 2010.
- _____, 金日宇 譯, 『濟州 古記文集 -濟州風土記』, 제주문화원, 2007.
- 李益泰 著, 金益洙 譯, 『知瀛錄』, 제주문화원, 2010.
- 李衡祥, 『耽羅巡歷圖』, 제주시 제주대학교 박물관, 1994.
- 林悌 著, 洪琦杓 譯, 『濟州 古記文集 -南溟小乘』, 제주문화원, 2007.
- 『제주삼읍교학사료집』, 전국문화원연합회제주지회, 2003.
- 趙觀彬, 『悔軒集』, 재단법인민족문화추진회, 1981.
- 『朝鮮王朝實錄』.
- 趙源煥 編著, 『楊洲趙氏史料選集』, 보경문화사, 1994.
- 趙貞喆 著, 金益洙 譯, 『靜軒瀛海處坎錄』, 2006.

2. 논문 단행본, 기타

- 강문규, 「비련의 자취를 남긴 유배인 조정철」 상, 삶과문화. vol. 38, 제주문화예

술재단 2010.

_____, 「비련의 자취를 남긴 유배인 조정철」 하, 삶과문화. vol. 39, 2010.

고창석 외, 『제주역사 이야기』, 제주특별자치도, 2010.

김경숙, 『역사비평 통권 67호--「조선시대 유배길」』, 역사와 비평사, 2014.

김경현 외, 『정조와 18세기』, 푸른역사, 2013.

金斗峰, 『濟州島實記』, 濟州實跡硏究社, 1993.

김만선, 『유배』, 갈리온, 2008.

金奉鉉 著, 洪性穆 譯, 『濟州道流人傳』, 濟州道愚堂圖書館, 2005.

金錫翼 著, 吳文福 譯, 『心齋集-제주 속의 탐라』,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1.

김순이, 『제주도』 지, 통권 109호, 「탐라역사인물기행-조정철 목사편」, 2005년, 8월.

김순이, 표성준 著 『제주 유배인과 여인들』, 여름언덕, 2012.

김 영, 『한국한문학의 현재적 의미』, 한울, 2008.

김윤중, 「悔軒 趙觀彬의 耽羅雜詠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0.

김재형, 「조선시대 제주유배인 실태분석과 특징」, 제주대학교, 석사논문, 2011.

金千亨 編著, 『耽羅史料文獻集』, 도서출판 디딤돌, 2003.

金興圭, 『文學과 歷史的 人間』, 창작과 비평사, 1980.

_____, 『한국문학의 이해』, 민음사, 1986.

南仁熙, 『濟州農業의 百年』, 태화인쇄사, 1985.

박동욱, 「조정철의 「耽羅雜詠」 연구」, 東洋漢文學硏究 제32집, 東洋漢文學會, 2011.

_____, 「한시에 나타난 유배객의 생활 모습 : 『정헌영해처감록』을 중심으로」, 語文硏究. 38권 3호 통권147호, 韓國語文敎育硏究會, 2010.

_____, 「두 사람의 유배인과 한 명의 제주 목사 : 조완, 조정철, 김영수」, 문헌과 해석. 통권50호, 문헌과해석사, 2010.

_____, 「靜軒 趙貞喆의 유배 한시 연구 : 홍량과의 사랑을 중심으로」, 溫知論叢 제17집, 溫知學會, 2007.

박용후, 『南濟州郡誌』, 1976.

백승중 외, 『조선의 통치철학』, 푸른역사, 2010.

『불멸의 연인, 의녀 홍윤애』, 제주특별자치도 문인협회. 2014.

- 「서천군 소식」 지,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박수환 -「충청도 관찰사 조정철 거사비」 제282호, 2014년 7월 25일 자, 6면.
- 소재영, 『국문학편답기』, 아세아문화사, 1998.
- _____, 『조선조 문학의 탐구』, 아세아문화사, 1997.
- 소준섭, 『왕의 서재』, 어젠다, 2012.
- 「슬로시티 이안면 둘러보기」, 상주시 이안면 지, 함령재(咸寧齋) 편.
- 신규수, 『유배, 유배지, 얽힌바람』, 이유, 2000.
- 안대희 / 이종묵, 『절해고도에 위리안치 하라』, 북스코프, 2011.
- _____, 『담바고문화사』, 문학동네, 2015.
- 양순필, 『제주유배문학연구』, 제주문화, 1992.
- 양진건, 『제주 유배길에서 추사를 만나다』, 푸른역사, 2015.
- 유홍준, 『완당평전 1~3』, 학고재, 2002.
- 윤선대 외, 『한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제주』, 국립제주박물관 편, 서경문화사, 2011.
- 이덕일, 『조선왕을 말하다, 2』, 역사의 아침. 2010.
- _____, 『黨爭으로 보는 朝鮮歷史』, 석필, 1997.
- 이병주, 『한국 한시의 이해』, 민음사, 1987.
- 이영권, 『조선시대 해양유민의 사회사』, 한울, 2013.
- 李種默, 『우리 한시를 읽다』, 돌베개, 2009.
- 『제1회 홍윤애 추모문학제-부활하라, 사랑』, 제주문인협회.
- 『濟州道磨崖銘』, 제주도, 1999.
- 『제주민속사전』, 제주특별자치도 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12.
- 「제주유배문학을 중심으로」, 제6회 서귀포문학 세미나 자료집, 한국문인협회 서귀포지부, 2011.
- 「제주유배인과 연인들-조정철과 홍윤애」, 한라일보, 2012, 7월 2일, 9일 자
- 『제주의 민속』, 제주도, 1994.
- 전경수 외, 『탐라사의 재해석』, 제주발전연구원, 2013.
- 정 민, 『한시 미학 산책』, 숲, 1999.
- 조동일, 『문학 연구 방법』, 지식산업사, 1980.
- _____, 「유배문학의 특성과 양상」, 『한국문화연구』 9,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05.

_____, 『한국문학통사 3』, 2013.

조성린, 『조선시대 사관이 쓴 인물평가』, 2005.

『통사로 살피는 제주 해녀』, 제주특별자치도 (사)세계문화유산보존사업회, 디자인오투,
2015.

『표선면 역사 문화지』, 제주문화원, 2009.

허경진, 『한시이야기』, 알마, 2014.

홍순만, 『사연 따라 七百里-제주도 역사의 현장을 찾아-』, 제주문화원, 2014.

_____, 『제주여인상』, 제주문화원, 1998.

ABSTRACT

A Study on Jo Jeongcheol's Viewpoint -Based on "Jeongheonyeonghaecheogamrok"-

Song In-yeong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change of his viewpoint, reflected on "Jeongheonyeonghaecheogamrok" written by Jo Jeongcheol during his exile life on jeju Island in the late 18th century.

The method for this purpose is to review his viewpoint and thoughts using the literature of "Jeongheonyeonghaecheogamrok", the unique collection of his poems during his exile life, and the products of the preceding research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jeju's natural environment and exotic culture in his early exile life caused him to have a negative viewpoint. Despite this, considering his works written in the course of his movement from Jeju-mok to Jeongeui-hyeon, it is inferred that his viewpoint and thought of Jeju was completely changed.

Second, Jeonheon exiled to Jeju due to the connection to an incident of conspiracy was extremely oppressed by governors or government workers. On this contrary, he was highly respected by Jeju islanders, considering his representative serial poetry.

Third, Tamra Japyeong(Songs of Tamra) of Jo Jeong-cheol provides Jeju's

history, industry, government workers' tyranny and rulers' corruption, which shows us the obedient connection between the 18 century central government's political situations and deportees exiled to jeju in terms of stream of consciousness.

According to Prof. Jo Dongil, exile is regarded as one of punishments in a traditional society. in terms of literature, it is one of the favorable opportunities of creation of literature. It is a regret to say preceding studies of exile literature concentrate on celebrities. Nevertheless, this study tries to reveal Jo Jeongcheol's exile literature in which he had a truthful and minute viewpoint of Jeju's exile life. Hopefully, further studies present new paradigm on Jeju's exile literature, based on the collection of his poems.

